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 일 시: 2014년 8월 29일(금) 15:00~18:00
- ▶ 장 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외솔홀
-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정책세미나 자료집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임.

정책세미나 : 세부일정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15:00~15:10	사 회 김정주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소장)
시 간	주 제 발 표
15:10~15:30	주제발표1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김영석 (동의대학교 교수)
15:30~15:50	주제발표2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10	주제발표3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협력 방안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16:10~16:30	휴 식
시 간	토 론
16:30~18:00	이은주 (역삼청소년수련관 팀장, 창체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학교연계와 지역연계) 박현순 (신길중학교 교감) 김정숙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봉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김천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사무관)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이지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목 차

주 제 발 표

1.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1
김영석 교수 (동의대학교)
2.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19
임지연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협력 방안 55
최상덕 소장 (한국교육개발원)

토 론 문

1. 이은주 (역삼청소년수련관 팀장, 창체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75
2.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학교연계와 지역연계) 77
3. 박현순 (신길중학교 교감) 85
4. 김정숙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91
5.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95
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99
7.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99
8.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103
9.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07

주제발표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김영석 교수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 청소년상담학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¹⁾

김 영 석 (동의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담장자가 인식하는 자유학기제의 실태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개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자연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 구성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Denzin & Lincoln, 2005).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현상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문화기술지(ethnography),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Research Method)을 통칭한다(Creswell, 2011).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달해온 다양한 연구방법을 ‘질적 연구’로 통칭하는 데는 이들 연구방법론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12, 유기웅 외, 2012, Merriam, 2009, Bogdan & Biklen, 2010).

첫째,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 현상에 대해 구성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1) 이 원고는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면담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42명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조사 하였으며, 면담조사 자료는 김영석(동의대학교 교수)이 근거이론으로 분석을 하였다.

특징으로 한다.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예: 성별, 거주지, 학력, 개인사 등)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이해를 낳게 한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질적 연구는 설정된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역적 접근이 아닌, 연구현상과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귀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질적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이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인터뷰 질문의 준비, 관찰 대상의 선정 등을 위해 질적 연구 역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이 요구된다(Merriam, 2009). 다만 이론에 맞추어 선정된 가설의 기각여부만을 파악하려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현장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구성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이를 해석하려는 귀납적 특성을 갖고 있다.

셋째,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연구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지나 실험상황과 관련한 목록 등에 자료가 수집된다. 그러나 귀납적 특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현상과 관련한 생각과 행동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현장에서 자료수집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 및 행동, 공간적 특성, 시간적-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귀납적 방식에 따라 자료를 직접 해석하게 된다. 연구자가 연구의 자료 수집 및 해석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질적 연구의 특성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의문점을 낳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의 훈련, 연구 참여자 검토, 풍부한 기술,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 사용, 동료 검토 등의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가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인간의 측면만을 파악하려는 반면, 연구현상을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성질을 포착하려는 개방적 특성을 갖고 있다(이남인, 2012). ‘질적 연구’에서 ‘질(質)’이라는 명칭은 연구현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교하려는 태도가 아닌 연구현상 내면의 다양성, 독특성, 맥락성을 포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2) 근거 이론 소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사회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과정을 통해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방법과 비체계적 질적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 및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학자에 의해 4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학자들마다 각자 다양한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연구 상황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자료분석 과정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 속에 존재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찾기 위해 유의미한 자료에 이름을 붙여 연구 자료를 의미의 최소 단위인 ‘코드(code)’로 분할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한다. 도출된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 함으로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코드를 동일한 ‘범주’(category)로 분류하게 된다.

둘째는 축 코딩(axial coding)단계인데, 축 코딩의 목적은 개방 코딩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연구현상의 구조(‘왜’에 대한 설명)와 과정(‘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Strauss & Corbin(1998)은 축 코딩 과정 중 연구현상의 분석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 구조인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 패러다임은 조건(conditions),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조건’은 연구 현상의 구체적 상황, 쟁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단의 사건이나 일로서, 왜,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지 설명해준다. 조건은 연구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 연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중재 조건’, 연구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을 의미하는 ‘맥락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동/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들이 마주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이는 구체적 행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행동/상호작용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가 수행하는 의도적 혹은 일상적 대응양상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 행동, 태도 등의 조정과정 까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동/상호작용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셋째 단계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이는 축 코딩 속에 존재하는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함으로써 연구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선택 코딩의 핵심적 과정은 ‘핵심 범주(core category) 선정’하기이며 그 이외에도 ‘이야기 윤곽(story line) 적기’와 ‘그림/표로 표현하기’이다. 핵심 범주란 연구 현상의 다양한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범주를 지칭한다.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와 축 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를 연결 지어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글을 기술하는 활동이다. 그림/표 표현하기는 연구자가 연구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독자는 연구의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 참여자 개요

연구 참여자는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지역체험활동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임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7개 기관 대상의 청소년지도사 8명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지역체험활동 사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8개 학교의 교사 9명과 함께 학부모 6명, 학생 15명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체험기관(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으로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현장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현장 멘토 4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번호	이름	직위	경험사례	유형	청소년 지도자
1	이00	실무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수련관	
2	김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ㄱ청소년수련관	
3	김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ㄴ청소년수련관	
4	박00	기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ㄷ청소년문화의집	
5	박00	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ㄹ청소년문화의집	
6	강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ㄺ청소년수련관	
7	이00	팀장	창의적 체험활동	ㅁ청소년수련관	
8	김00	팀장	창의적 체험활동	ㅂ청소년수련원	

9	허00	담당교사	지역체험 중심활발 (학부모중심)	ㅅ중학교	학교 담당 교사
10	김00	연구부장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ㅈ중학교	
11	고00	상담교사	교육복지우선투자	ㄷ중학교	
12	김00	담당교사	수업개선 중심	ㅎ학교	
13	김00	학년부장	지역체험, 동아리 중심	ㅍ중학교	
14	박00	교감	지역체험 중심활발 (학부모중심)	ㄱ중학교	
15	고00	교감	지역체험 청소년수련관 연계활발 (교사중심)	ㅂ중학교	
16	박00	담당교사	수업개선 중심	ㄷ중학교	학생
17	한00	담당교사	중1진로선택집중학년제 운영 경험	ㅇ중학교	
18	학생 15명	중2 (중1때 경험 면담)	자유학기제 2013년 중1 2학기때 지역체험 경험 있음	ㅅ중학교 ㅂ중학교 ㅍ여중	
19	학부모 6명	자녀	자유학기제 2013년 중1 2학기때 지역체험 경험 있음	ㅅ중학교 ㅂ중학교	학부모
20	정00	사장	소규모 개인 사업장	ㅍ커피숍	
21	김00	팀장	종교단체, 민간단체, 구청	ㅈ푸드마켓	지역 체험 기관
22	설00	홍보교육 팀장	대기업	ㅂ주식회사	
23	손00	청소년관련 담당 팀장	공공기관	ㅇ경찰서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면대면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화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보완하며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개별적 사례들의 특수성에 대해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관련 고민거리나, 개선방안,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주요 질문 항목을 정한 뒤 그 항목을 중심으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세부 질문을 수정·보완하면서 심화, 분화시켜나갔다. 인터뷰 과정은 피면담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현장기록 및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활동,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과정, 성공적 운영의 요인 등이다.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소개**

주요 요소	내 용
인터뷰 참여자 섭외과정	관련 사례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 (경험, 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순으로 고려)
인터뷰 참여자 수	(개별면담)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체험기관 별로 1인 내외 21명 (FGI면담) 학생과 학부모 21명
인터뷰 참여자 특성 개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 경험자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
인터뷰 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개별 및 FGI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인터뷰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인터뷰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기록

3. 면담자료 분석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 안에 존재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의 과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 Strauss, 1967)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수집된 인터뷰 및 관찰 자료를 단어/어구/문장 수준에서 꼼꼼히 세분화한 후 각 단어/어구/문장에 존재하는 주요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각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사건, 의미, 활동 등)을 개념의 공통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범주'(category)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범주들을 서로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범주의 특성에 따라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통해 총 31개의 하위범주와 13개의 상위범주가 만들어졌다.

표 3

개방 코딩 결과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받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적극적 연락, 교실 안에서 교사만 가르치는 것에 한계 느낌, 학부모의 찬성	자유학기제 필요성 공감	학교의 관심	인과조건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교감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와의 연계,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들이 속한 학교연계, 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연계, 공공기관사업을 통한 학교연계	학교와의 연계	청소년기관 의 관심	
청소년에 대한 사랑, 사명감, 학교수업과 연계한 대낮 청소년 시설 이용의 당위성, 학교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식 향상. 청소년들이 갈곳없을 때 갈 수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서 공간제공, 청소년활동 전용시설 이용율 높임. 공간이 넓어 학생들 체험 많이 가능, 신청인원이 차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함.	청소년기관의 사명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 교육기부목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공익적 목적	사회적 책임 추구	지역체험기관의 관심	
기업의 장점 소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홍보처 필요, 학교와의 연계 추구	기관 홍보 추구		
교사의 적극성, 교장의 융통적 마인드, 교사의 자발적-적극적 노력, 진로부장의 세심함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교육의 장이 넓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	교사의 열정	학교의 특성	중재 조건
학부모 대상 학교의 적극적 홍보(학교설명회), 학교 교사간의 협력(1학년부장-교무부장-연구부장-진로부장), 학교장의 태도	학교의 긍정적 태도		
학부모의 청소년 활동 인식향상, 학부모님의 적극적 협조, 체험처 발굴, 학부모진로코치교육(학생인솔), 보조인솔자 역할, 부모와 자녀 팀을 이루어 참여, 지역체험 계획-체험-정리, 학부모지원단,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		
시설의 공간 문제 걸어올만한 거리의 학교와 연계, 최소 두 학급 이상 참여 장소 고려, 장소 부족 시 인근 공공기관 활용, 청소년시설의 공간적 매력,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의 학교와 연계됨, 공간이 넓어 학생들 체험 많이 가능, 신청인원이 차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함,	기관의 공간 및 학교와의 거리	청소년기관의 특성	
진로교사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요구사항 프로그램에 반영함, 학교와 지역연계기간 다리 역할, 학교의 필요를 파악 후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함, 학교와 운영협의회 구성, 학교와의 잦은 통화	학교의 필요사항 파악		
학교의 청소년시설의 인정-신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인정, 청소년수련관 역할 다시 봄, 영리업체의 진입을 막는 역할	청소년전문시설로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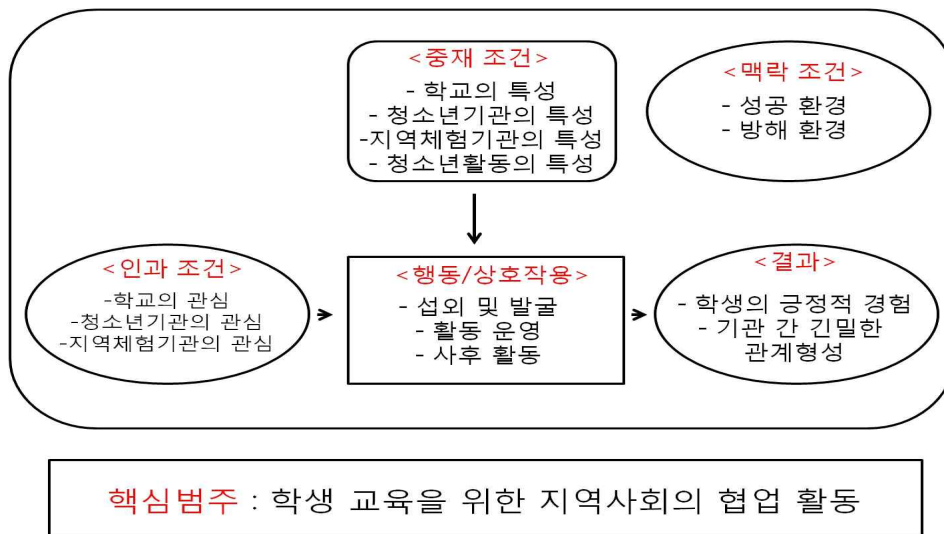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지역연계기관 선정시 접근성 고려, 이동수단의 문제로 인한 접근성 고려, 이동시 어려움(교통편, 안전사고, 기관 사용 비용)고려	기관의 공간 및 학교와의 거리	지역체험기관의 특성	
지역체험기관의 일정과 조율, 매출감소우려, 직원들의 불만발생, 재료비 부담, 기관주관행사와 연결 추구	고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학생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 학생의 멘토 역할, 석 달 동안의 준비, 학생의 의견 반영키 위해 최대한 노력, 학생들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심,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기관장 및 직원의 태도		
직업체험 기관 선정 시 학생들 요구 반영, 학생들의 요구조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스마트폰을 통한 학생들 서로간의 체험 비교, 왜 이러한 체험기관을 방문하며 내가 왜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는지 학생입장에서 궁금함.	학생의 요구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의 특성	
연속적으로 지역기관이 참여가능한지 확인, 지속적 활동에 대한 고민	지속적 활동 필요		
진로직업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각자 시스템 이해, 학교와의 공감대 형성, 기존 사업으로 잦은 만남 가짐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활용	성공 환경	맥락 조건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관련 교사교장기관장 대상의 설명회 및 연수, 지자체 교육청부처의 협력지원, 교육청을 기반으로 한 정보구축 및 홍보,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원하고 행정협조를 해줌(예,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체험활동을 예산, 인력, 행정적으로 함께 지원함.	국가적 지원		
학교 교사의 정책에 대한불신, 재정지원중단, 정책이 없어짐, 일관성 없는 정책 청소년지도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의 예산과 지원이 갑자기 중단됨.	일관성 없는 정책적 문제	방해 환경	
청소년 시설이 일부 프로그램만 지원 요구, 강사정보만 요구,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냉담과 무시, 대등하지 않은 관계, 교육기관의 우월주의, 다양한 시도를 꺼림, 학생들을 컨트롤 하지 않음, 체험기관 현장멘토 및 체험기관의 운영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	학교의 폐쇄적 태도		
지역기관이 방문학생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지 못함, 학생들이 무엇 하는 시설인지 모른 채 방문, 체험 전 학교의 사전 설명이 없음	사전 준비 부족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프로그램 개발 후 공문 통해 학교모집, 기존 청소년체험활동 연계 활용, 교육청에 공문 보냄, 학교교사대상 설명회 개최, 청소년기관의 홍보, 학교에서 연락이 옴	학교-청소년기관	섭외 및 발굴	행동/ 상호작용
교사의 직업체험기관 섭외, 학부모의 지역체험기관 섭외, 교육청의 발굴, 학교 선생님의 발굴, 다른 사업으로 생긴 네트워크 활용, 교육기부박람회참가, 인맥을 통한 발굴, 대규모 기관의 경우 사전답사,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	학교-지역체험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업장 1:1로 발굴, 일터기업인을 강사로 섭외, 청소년시설의 적극적 섭외, 기존네트워크 활용, 지인활용, 방문부탁, 인터넷조사, 지역기관의 청소년기관 홈페이지 방문, 청소년기관 소개로 학생들 지역기관방문	청소년기관-지역체험기관		
진로교사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 담당자와의 만남, 진로교사와 청소년시설 담당자와의 실무자 협의회 구성, 지속적 대화 필요, 학교운영협의회, 청소년담당자의 학교의 잦은 방문, 학교-청소년기관 SNS	상호 접촉	활동 운영	
수련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활동 모델에 맞게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학부모의 지역체험 현장순회지도, 학생들의 진로체험, 강사지원 받음, 수업연계 체험, 방과 후 외부 강사들의 교내 체험제공, 소규모 체험, 대규모 체험, 동아리 활동	현장 활동		
학교의 선물 전달, 학생 및 학교장의 감사편지, 학생들이 멘토에게 감사엽서를 작성함, 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현판전달, 감사인사, 놓치지 않도록 관리	인정	사후 활동	
학교교사, 학부모, 일터 멘토, 진로직업지원센터 간 간담회실시, 사후 평가회 개최, 설문 및 평가분석,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체험활동 사진 및 소감 전시회, 발표회	평가 및 성과물 전시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기획자 및 활동가 역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 외국인과의 접촉,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남, 매주 색다른 경험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	학생의 긍정적 경험	결과
자기개발, 재능개발, 인성교육, 공동체 의식, 지역기관 멘토에게 교사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움, 더 밝아짐,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직업적 흥미 유도,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움, 기존 친구들과 가까워짐, 재미있음, 몰랐던 친구 알게 됨, 마음이 편함	긍정적 활동/정서 경험		
진로에 대한 새로운 태도, 나의 장점 파악,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함, 진로 발견, 시험보다 나의 꿈 더 생각	진로에 대한 관심 증대		
학교상황 이해하게 됨, 학교의 요구 파악, 긍정적 인식,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 연계가 많아짐, 학교 연계 용이	학교-청소년기관	기관 간 긴밀한 관계형성	
지역체험기관의 지역체험 관련 요구 존재 이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지역사회 내 필요한 자원 연계, 지역사회 조직이 넓어짐	청소년기관-지역체험 기관		
청소년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 및 활용증가, 긍정적 인식,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 파악가능	청소년(학부모)-청소년 기관		

2) 축코딩(axial coding)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인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를 배열하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은 패러다임의 요소로서 조건(conditions),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축코딩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축 코딩 결과

(1) 인과 조건 (causal conditions)

인과 조건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왜’ 특정한 행동/상호작용의 양상이 나타났는 지와 관련되어 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원인은 크게 ‘학교의 관심’, ‘청소년 기관의 관심’, ‘지역체험기관의 관심’으로 구분되었다. 일선 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연구학교 또는 희망학교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의 경우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계된 학교의 요청을 받아 들어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과 관계없이 청소년 기관의 담당자가 인식하는 직업적 사명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체험기관의 경우 기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와 기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유학기제 활동을 시작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중재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조건을 의미한다. 중재 조건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순화된 형식으로 표출되는데 매개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조건으로 '학교의 특성', '청소년기관의 특성', '지역기관의 특성', '청소년활동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먼저 학교의 경우 동일한 연구/희망학교라 할지라도 개별 교사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자발적 노력을 보이는 지, 학교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한 협력활동을 원활하게 하였는지, 학부모들과 얼마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가 자유학기제 활동의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기관의 경우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연계된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학교의 필요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전문시설로 인정받을수록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체험기관의 경우 역시 적절한 기관 내 활동 공간이 확보되고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기관장 및 직원들이 청소년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유학기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체험 기관의 경우 자유학기제 활동이 사업 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고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내용이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을수록, 단 기간의 체험이 아닌 지속적 활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맥락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맥락 조건은 참여자들의 행동/상호작용이나 연구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을 의미한다. 맥락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나 중재 조건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인과적 조건과 중재 조건은 맥락 조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된다. 자유학기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으로는 ‘성공 환경’과 ‘방해 환경’이 도출되었다. 먼저 성공 환경으로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으로 학교-청소년기관-지역사회기관 간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국가 및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존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의 일관성 없는 진행, 일부 학교가 청소년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폐쇄적 태도, 학교와 학생의 사전준비 부족 등이 부정적 맥락 조건으로 조사되었다.

(4) 행동/상호작용

‘행동/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들이 마주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조건 속에서 연구와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이 구체적으로 보인 의도적 혹은 일상적 대응양상을 의미한다. 행동/상호작용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갖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교류과정을 통한 생각의 타협과 조정과정도 포함된다.

자유학기제의 주체인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기관이 보인 활동 및 상호작용은 크게 ‘섭외 및 발굴’, ‘활동 운영’, ‘사후활동’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섭외 및 발굴 단계에서는 학교가 먼저 청소년기관과 지역기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제안하는 경우, 학교가 직접 지역체험기관에 연락하여 섭외하는 경우, 청소년기관이 지역체험기관과 먼저 연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이를 일선 학교에 제안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 운영과정은 실질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기관 간의 방문 및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한 상호 접촉, 각 기관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활동,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활동운영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후 활동에서는 학교 측에서 직업 체험 및 지역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 지역체험기관에 일정한 감사를 표시하는 인정과 관련한 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이들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활동 등이 있었다.

(5) 결과

결과는 행동/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행동/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의미한다. 결과는 연구와 관련된 개인 및 조직에 의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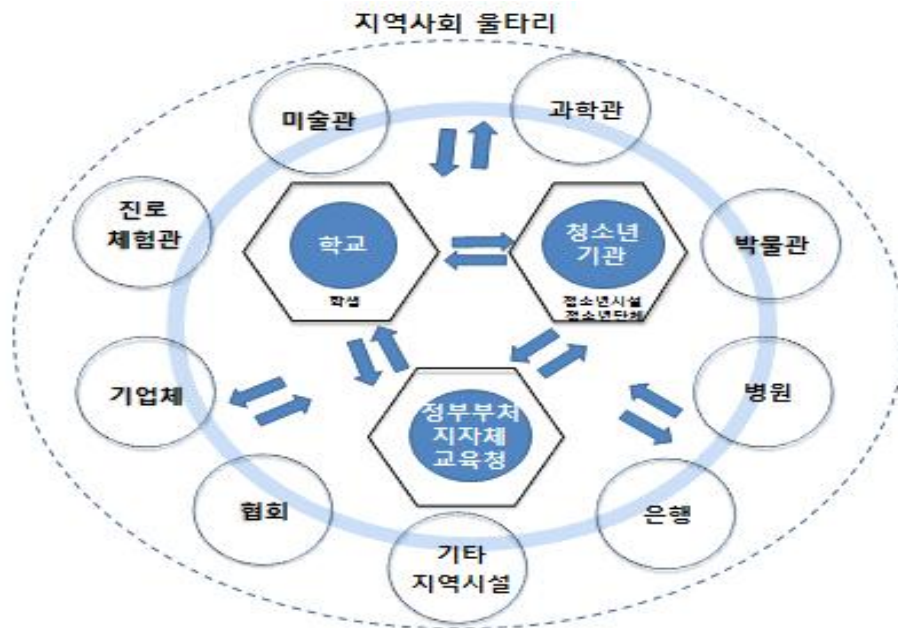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발생된 결과는 '학생의 긍정적 경험'과 '기관 간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및 교실 안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업적 흥미 갖기, 공동체 의식 함양, 편한 마음 등 긍정적 활동 및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기관인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 기관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연계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동안 청소년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청소년 기관의 존재 및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축 코딩에 살을 붙여 최종적으로 연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선택코딩의 주요목적은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범주들을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통합시켜 연구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활동'으로 선정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물론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지만 아울러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학교나 가정 만의 몫이 아닌 온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교사, 청소년 기관,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학생(청소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코딩과 관련한 결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첫째, 청소년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기관은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하였던 학교의 교무 및 연구 활동 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학교와 대등한 관계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림 2] 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활동

둘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학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기관과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체험기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그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지역체험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일선 학교 및 청소년기관과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기관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협업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다각적 협력체제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예산, 전담조직 인력, 홍보, 공문 등 행정협조 등을 다각적으로 함께 지원할 때에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협업 활동이 신뢰롭게 잘 이루어졌다.

참 고 문 헌

- 김영천(2012). 질적 연구방법론 1: Bricoleur (2판).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Bogdan, R., & Biklen, S. (저), 조장수 (역)(2010). 교육의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경문사 (원저 2007년 출간).
- Cresswell, J. (2011). 연구 방법: 지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김영숙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9년 출판)
-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Introduction. In Denzin, N. K. & Lincoln, Y. 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1-32.
- Glaser, B., & Strauss, A. (1967). 이병식 외 공역 (2011). 근거이론의 이해. 학지사.[원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 Merriam, S.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주제발표2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임지연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임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청소년지도사, 교사)
 - 1) 설문응답자의 특성
 - 2)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 3) 기관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항목차이
 - 4)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 실천도)
3.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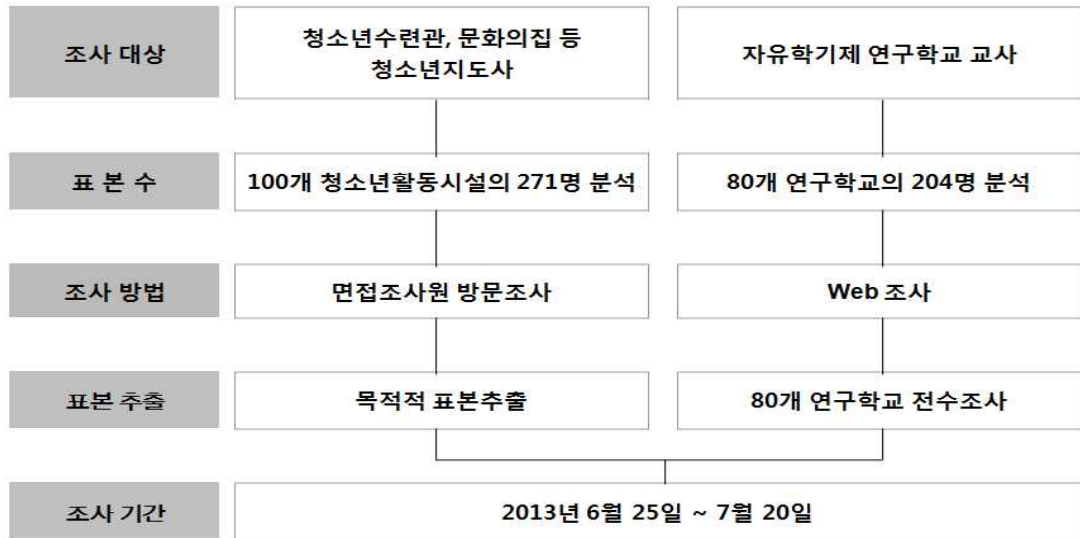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²⁾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형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실천도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은 문헌연구, 현장워크숍, 현장관찰, 면접조사 결과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초안을 작성한 후 설문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첫째,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전수조사로 현재 80개 학교당 4명의 담당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활동시

2)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하여 2016년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설(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중심) 청소년지도사 24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였다. 이후 80개 학교의 204명의 교사, 100개 청소년활동시설의 271명 청소년지도사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설문 조사 개요

2) 설문지 개발과정

설문 조사영역은 ① 전문인력(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② 프로그램(개발, 운영, 평가) ③ 연계협력(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④ 기반구축(제도마련) ⑤ 인적사항/배경변인 이다. 4개의 영역, 8개의 소영역 별로 세부 문항은 33문항이며, 배경변인은 7문항이다. 전문인력은 7문항, 프로그램은 14문항, 연계협력은 6문항, 기반구축은 9문항, 배경변인은 청소년지도사/교사 각 7문항이다.

설문지 개발과정은 문헌고찰과 워크숍,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청소년지도사용, 담당 교사용으로 2가지 종류로 개발하였다. 이후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와 설문지 개발 워크숍,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1>. 영역구분은 정책제언에 필요한 영역으로 문헌과 연구진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표 1

설문지 영역별 문항 (청소년지도사/교사)

영역	소영역	세부항목
전문인력	전문성 확보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장(기관장) 연수 2) 학교(지역)연계 전담 인력의 채용 3) 학교(지역)연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4) 학교(지역)연계 해당 학교(기관)의 업무내용 및 방향의 지속성
	실무역량 육성	15) 행정기관에서 학교(지역)체험활동 운영을 컨설팅 할수있는 전문가육성 16) 자유학기제에 관한 실무자 연수 실시 17) 지역체험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33)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프로그램 (운영, 개발, 평가)	프로그램 개발	9) 청소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12) 지역체험 활동 시 참가 청소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30)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 지역체험 인솔도우미 봉사단 운영 8) 청소년 지역체험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11) 지역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14) 지역체험활동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운영 18)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역할에 대한 사전 협의 25)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2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프로그램 평가	10) 학교(기관) 평가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반영 강화 13) 지역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실시(예, 평가회의, 만족도 등) 29)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평가 실시
연계협력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참여한 청소년지역체험기관에 대한 표창, 명단공개, 감사패, 감사편지 등 인센티브 부여 6)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21)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협력체계	19)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사업 MOU 협정 20)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기반구축	제도마련	22)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23)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24) 지역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7)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 확대 28)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32) 체험활동 안전대책마련

영역	세부항목
배경 변인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2) 응답자 직위(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기타) 3)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4) 학교연계 인식정도 5) 학교연계 어려운 이유 6) 기관 지역규모 (16개 광역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기관주소) 7) 기관규모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등 대 · 중 · 소규모)
배경 변인 (교사)	1)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수업방법개선, 동아리활동 · 선택프로그램(교내), 진로 활동(교내), 지역체험활동(진로 · 직업 · 동아리활동 · 선택프로그램), 기타)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3) 지역체험활동 인식정도 4)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인식정도 5)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6) 학교 지역규모 (16개 광역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학교주소) 7) 학교규모 (자유학기제 해당학년 학급수, 학급별 인원수 등 대 · 중 · 소규모)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지도사(100개 청소년기관, 271명)와 교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중 74개 학교, 204명)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기관의 규모, 지역규모, 청소년기관의 유형, 응답자의 직위,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 응답자의 특성은 학교규모, 지역규모,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표 2>.

표 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지도사, 교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청소년지도사 (100개기관)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청소년기관 규모)	5명 미만	53	20.9
		5-9명	86	34.0
		10-19명	81	32.0
		20명 이상	33	13.0
		합계	253	100.0
	지역규모 ³⁾	대도시	108	47.4
		중소도시	77	33.8
		읍면지역	43	18.9
		합계	228	100.0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청소년수련관	141	52.6
		청소년문화의집	63	23.5
		청소년수련원	26	9.7
		기타(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 ⁴⁾	38	14.2
		합계	268	100.0
	응답자의 직위	기관장	4	1.5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	81	30.3
		실무자(청소년지도사)	171	64.0
		기타	11	4.1
		합계	267	100.0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224	83.6
		경험이 없다	44	16.4
		합계	268	100.0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46	54.7
		중요하다	112	41.9
		중요하지않다	9	3.4
		합계	267	100.0
교사 (74개 학교)	학교규모 ⁵⁾	대규모	55	27.2
		중규모	101	50.0
		소규모	46	22.8
		합계	20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7	48.0
		중소도시	43	21.3
		읍면지역	62	30.7
		합계	202	100.0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	없음	2	1.0
		학기당 1-2회	34	16.7

		주2회 이상	10	4.9
		합계	204	100.0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17	57.4
		중요하다	84	41.2
		중요하지않다	3	1.5
		합계	204	100.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이름만 들어봤다	32	15.7
		처음 듣는다	2	1.0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47	72.1
		자주 이용한다	23	11.3
		합계	204	100.0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청소년지도사)

100개의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27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사 인원수(청소년기관의 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5-9명(34.0%), 10-19명(32.0%), 5명 미만(20.9%), 20명 이상(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52.6%), 청소년문화의집(23.5%), 기타(14.2%), 청소년수련원(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이다. 응답자의 직위는 실무자(청소년지도사)(64.0%),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30.3%), 기타(4.1%), 기관장(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94.3%가 실무자나 중간관리자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는 경험이 있다(83.6%), 경험이 없다(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중요하다(96.6%), 중요하지않다(3.4%)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가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3) 청소년기관의 **규모**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5명 미만, 5-9명, 10-19명,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함. 청소년기관이 위치한 **지역규모**는 근무지역의 주소를 기입한 내용을 데이터클리닝을 한 후 자료를 가공하여 recode 하였음. 지역규모의 기준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제시된 기준을 사용하였음.
- 4) 기타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유센터 등으로 나타났음.
- 5) **학교규모**는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이상),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학급),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을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규모**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 제시된 내용을 사용하였음. 기준에 대한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2) 응답자의 특성 분석(교사)

8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학급)가 50.0%,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 이상)가 27.2%,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가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48.0%), 읍면지역(30.7%), 중소도시(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학기당 1-2회(16.7%), 주1회 이상(8.8%), 월2회(7.8%), 주2회 이상(4.9%), 없음(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매우 중요하다(57.4%), 중요하다(41.2%), 중요하지 않다(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98.6%, 중요하지않다는 1.5%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는 이용해 본 적이 있다(72.1%), 이름만 들어봤다(15.7%), 자주 이용한다(11.3%), 처음 듣는다(1.0%)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분포 (청소년지도사, 교사)

첫째, 응답한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은 14개구의 22개 청소년기관에서 7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은 5개구(5개 청소년기관, 9명), 대구지역은 3개구(3개 청소년기관, 10명), 인천지역은 2개구 1개군(4개 청소년기관, 9명), 광주지역은 2개구(2개 청소년기관, 4명), 대전지역은 2개구(2개 청소년기관, 4명), 울산지역은 1개군(1개 청소년기관, 5명), 경기지역은 15개시(21개 청소년기관, 64명), 강원지역은 4개시 2개군(6개 청소년기관, 9명), 충북지역은 1개구 1개군(2개 청소년기관, 2명), 충남지역은 1개구 1개군(2개 청소년기관, 5명), 전북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청소년기관, 7명), 전남지역은 4개시 2개군(6개 청소년기관, 6명), 경북지역은 3개시(3개 청소년기관, 4명), 경남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청소년기관, 7명), 제주지역은 2개시(11개 청소년기관, 17명)로 총 100개의 청소년기관에서 236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응답하였다. 둘째, 응답한 교사의 학교 및 지역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은 5개 구의 5개 학교에서 11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은 2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대구지역은 3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인천지역은 4개구(4개 학교, 13명), 광주지역은 3개구(4개 학교, 13명), 대전지역은 5개구(6개 학교, 18명), 울산지역은 3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세종지역은 1개시(2개 학교, 3명), 경기지역은 4개시(7개 학교, 23명), 강원지역은 1개시 3개군(4개

학교, 9명), 충북지역은 1개시 2개군(4개 학교, 7명), 충남지역은 2개시 3개군(5개 학교, 12명), 전북지역은 2개시 1개군(3개 학교, 6명), 전남지역은 1개시 5개군(6개 학교, 13명), 경북지역은 3개시 2개군 (5개 학교, 9명), 경남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학교, 17명), 제주지역은 2개시(2개 학교, 6명)로 총74개 학교에서 20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이와같이 응답한 청소년지도사(236명)의 청소년기관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표 3>. 응답한 교사(202명)의 학교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8.0%), 중소도시(21.3%), 읍면지역(30.7%)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3 **응답자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분포 분석 (청소년지도사)**

16개 광역·자치도시	시군구	청소년기관 명	기관 수 (개)	지도사 (명)
서울	14개 구	ㄱ 청소년수련관, ㅋ 청소년수련관, ㄷ 비미울 청소년수련원, ㄸ 청소년수련관, ㅁ 청소년수련관, ㅂ 상상센터, ㅅ 청소년수련관, ㅇ 유스호스텔, ㅈ 청소년수련관, ㅊ 청소년수련관, ㅌ 청소년수련관, ㅍ 청소년수련관, ㅇ 청소년수련관, ㅎ 청소년문화의집, ㅎ 청소년수련관, ㅇ 기관, ㅇ 기관, ㅎ 청소년문화의집,	22	74
부산	5개 구	ㄱ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수련원, ㅆ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ㅇ 청소년수련관, ㅎ 청소년문화의집	5	9
대구	3개 구	ㄷ 청소년문화의집, ㄹ 청소년수련원, ㅏ 청소년수련원	3	10
인천	1개 군 2개 구	ㄱ 청소년문화의집, ㅋ 청소년수련관, ㅃ 청소년수련관, ㅇ 청소년수련관	4	9
광주	2개 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ㅇ 기관	2	4
대전	2개 구	ㄷ 청소년문화의집, ㄷ 청소년자연수련관	2	4
울산	1개 군	ㅇ 청소년수련관	1	5
경기	15개 시	ㄱ 청소년수련관, ㄱ 청소년수련관, ㄲ 청소년문화의집, ㄴ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수련원, ㅂ 청소년수련관, ㅅ 청소년수련관, ㅇ 청소년육성재단, ㅈ 청소년문화의집, ㅇ 청소년수련관, ㅇ 청소년수련원, ㅎ 청소년문화의집, ㅇ 청소년수련관, ㅎ 청소년수련원, ㅎ 청소년문화의집, ㅎ 청소년디딤센터	21	64
강원	4개 시 2개 군	ㄱ 청소년문화의집, ㄴ 청소년수련원, ㄷ 청소년문화의집, ㅎ 종합문화복지센터, ㅎ 청소년수련관, ㅇ 기관	6	9

전북	3개시 2개군	ㄹ ㅈ 청소년수련관, ㅇ ㅅ 청소년문화의집, ㅎ ㅈ 청소년문화의집, ㅇ ㅅ ㅅ 청소년문화의집, ㅈㅇ 청소년수련관	5	7
전남	4개시 2개군	ㄱ ㅎ 우주체험센터, ㄴ ㅈ ㅅ 청소년수련관, ㄹㅇ ㄱ 청소년수련관, ㅅ ㅈ ㅅ 청소년수련원 ,ㅇ ㅅ ㅅ 청소년문화의집, ㅇㅇ 기관	6	6
경북	3개시	ㄹ ㄱ ㅅ ㅈ 유스호스텔, ㅅ ㄷ 청소년수련관, ㅇ ㄷ 청소년문화센터	3	4
경남	3개시 2개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ㄱ ㅎ 청소년문화의집, ㅇㅇ 기관, ㅇㅇ 기관, ㅇ ㅇ 기관	5	7
제주	2개시	ㄱㅇ 청소년문화의집, ㄷ ㅈ 청소년수련관, ㅅ ㄱ ㅍ ㅅ 청소년문화의집, ㅅ ㅅ 청소년문화의집, ㅅ ㅅ 청소년문화의집, ㅇ ㄷ 청소년문화의집, ㅍ ㅅ 청소년문화의집, ㅇ ㄹ ㄷ 청소년문화의집, ㅈ ㅅ YMCA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ㅈ ㅈ 청소년수련관, ㅎ ㄹ 청소년문화의집	11	17
청소년기관수 합계			100	236
무응답 (ㅇㅇ기관은 지역 응답자 중 기관명은 밝히지 않은 것임)				35
합계				271

표 4 **응답자의 학교 및 지역분포 분석(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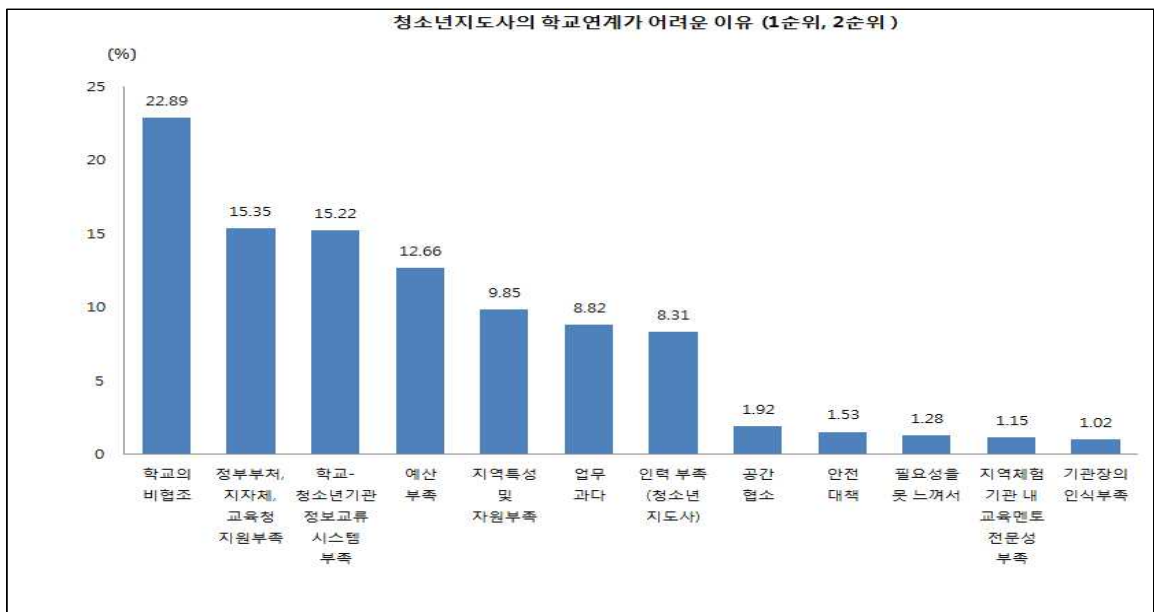
2)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와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2순위) 의 조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순위별로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의 비협조(22.89%)가 가장 높았으며,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15.22%), 예산부족(12.66%),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9.85%), 업무과다(8.82%), 인력부족청소년지도사의 인력부족(8.31%), 공간협소(1.92%), 안전대책(1.53%), 필요성을 못느껴서(1.28%),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부족(1.15%), 기관장의 인식부족(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현장의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예산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이 더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상호이해와 홍보, 신뢰구축을 통한 행정협조, 정보교류, 신뢰구축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단기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 보여 진다. 이는 차후 논의될 중요도에 가중치를 둔 우선순위 분석결과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예산배정, 법령, 학교연계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공동실무협의회 등으로 나타난 것과는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1순위, 2순위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임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 예산부족(9.49%),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전문성부족(7.69%),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 지원부족(7.37%), 안전대책(7.2%),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7.04%),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5.73%),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4.56%), 학교 인력부족(3.77%), 필요성을 못 느껴서(0.66%), 기관장의 인식부족(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지역특성(교통불편, 먼거리 등)과 지역자원부족, 업무과다, 예산부족을 체감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는 뒤쪽에 논의될 중요도에 가중치를 둔 우선순위 분석결과로 전담인력,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예산배정, 교육멘토 양성이 제시된 것과는 연결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1순위, 2순위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임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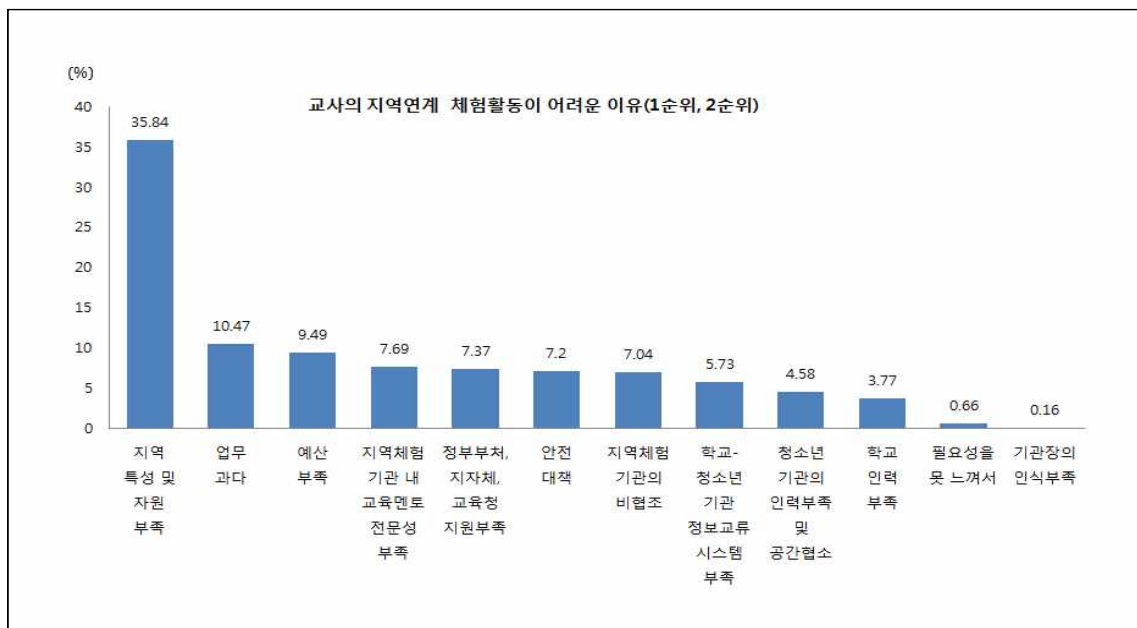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77	5	9.85
안전대책	12	9	1.53
업무과다	69	6	8.8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	10	1.28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	120	2	15.35
인력 부족(청소년지도사)	65	7	8.31
학교의 비협조	179	1	22.89
예산부족	99	4	12.66
공간협소	15	8	1.92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9	11	1.15
기관장의 인식부족	8	12	1.02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	119	3	15.22
합계	782		100%



[그림 2]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표 6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구분	빈도	순위	비율(%)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219	1	35.84
안전대책	44	6	7.20
업무과다	64	2	10.47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1	0.66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	45	5	7.37
학교 인력 부족	23	10	3.77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	43	7	7.04
예산부족	58	3	9.49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	28	9	4.58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47	4	7.69
기관장의 인식부족	1	12	0.16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	35	8	5.73
합계	6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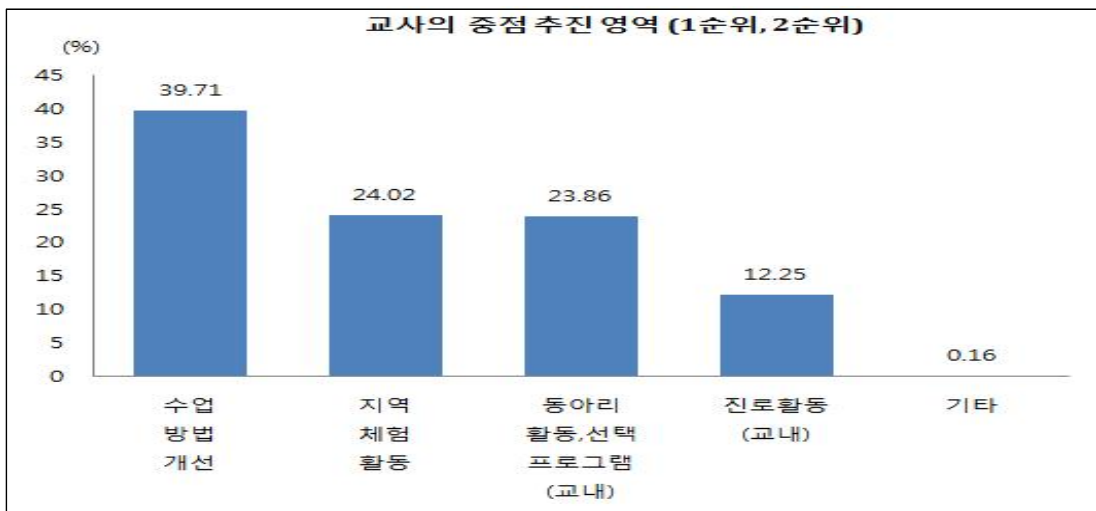


[그림 3]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 진로활동(교내)(12.25%), 기타(0.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방법 개선이 가장 많았지만 약 40%에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도 약 25% 정도로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동안 편의상 학교는 수업개선 영역에서만 대부분 활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 영역 (다중응답분석)

구분	빈도	순위	비율(%)
수업방법개선	243	1	39.71
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교내)	146	3	23.86
진로활동(교내)	75	4	12.25
지역체험활동	147	2	24.02
기타	1	5	0.16
합계	612		100%



[그림 4] 교사의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다중응답분석)

3)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5미만의 기대빈도가 20% 미만으로 유의도를 신뢰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한해서 χ^2 검증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 둘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8.723^*$, $df=2$)가 나타났다. 학교규모에 따른 문항별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 영역(1순위),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문항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합계 χ^2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 영역 (1순위)	수업방법개선	32(30.2)	55(51.9)	19(17.9)	106(100)
	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 (교내)	7(18.4)	23(60.5)	8(21.1)	38(100)
	진로활동 (교내)	7(35.0)	8(40.0)	5(25.0)	20(100)
	지역체험활동	9(23.7)	15(39.5)	14(36.8)	38(100)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	학기당 1-2회 이하	12(33.3)	13(36.1)	11(30.6)	36(100)
	학기당 3-5회	21(25.0)	44(52.4)	19(22.6)	84(100)
	학기당 6-10회	12(31.6)	18(47.4)	8(21.1)	38(100)
	월2회	6(37.5)	9(56.2)	1(6.2)	16(100)
	주1회 이상	4(14.3)	17(60.7)	7(25.0)	28(10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이름만 들어봤다	11(33.3)	14(42.4)	8(24.2)	33(100)
	이용해 본 적이 있다	38(25.9)	72(49.0)	37(25.2)	147(100)

어려운 이유 (1순위)	기타	34(29.1)	65(55.6)	18(15.4)	117(100)
*p<.05 **p<.01 ***p<.001					

둘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영역(1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8.262^{**}$, $df=6$)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2.753^{**}$, $df=2$)가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문항별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학교의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문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χ^2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 영역 (1순위)	수업방법개선	52(49.1)	32(30.2)	22(20.8)	106(100)
	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 (교내)	20(52.6)	2(5.3)	16(42.1)	38(100)
	진로활동 (교내)	7(35.0)	3(15.0)	10(50.0)	20(100)
	지역체험활동 (진로 직업,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 등)	18(47.4)	6(15.8)	14(36.8)	38(100)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	학기당 1-2회 이하	11(30.6)	12(33.3)	13(36.1)	36(100)
	학기당 3-5회	43(51.2)	16(19.0)	25(29.8)	84(100)
	학기당 6-10회	20(52.6)	7(18.4)	11(28.9)	38(100)
	월2회	10(62.5)	2(12.5)	4(25.0)	16(100)
	주1회 이상	13(46.4)	6(21.4)	9(32.1)	28(10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이름만 들어봤다	18(54.5)	5(15.2)	10(30.3)	33(100)
	이용해 본 적이 있다	67(45.6)	31(21.1)	49(33.3)	147(100)
	자주 이용한다	12(54.5)	7(31.8)	3(13.6)	22(100)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29(34.1)	20(23.5)	36(42.4)	85(100)
	기타	68(58.1)	23(19.7)	26(22.2)	117(100)
*p<.05 **p<.01 ***p<.001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chi^2=34.813^{***}$, $df=6$), 현재 근무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chi^2=55.617^{***}$, $df=9$),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chi^2=15.079^{**}$, $df=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 차이(청소년지도사)

단위: 명(%)

문항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명 이상	합계	χ^2
지역규모	대도시	10(9.4)	36(34.0)	46(43.4)	14(13.2)	10.6(100)	34.813*** (df=6)
	중소도시	14(18.7)	25(33.3)	27(36.0)	9(12.0)	75(100)	
	읍면지역	20(48.8)	14(34.1)	3(7.3)	4(9.8)	41(100)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청소년수련관	13(9.6)	54(39.7)	54(39.7)	15(11.0)	136(100)	55.617*** (df=9)
	청소년문화의집	27(45.0)	16(26.7)	16(26.7)	1(1.7)	60(100)	
	청소년수련원	3(13.0)	6(26.1)	6(26.1)	8(34.8)	23(100)	
	기타(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	10(29.4)	10(29.4)	5(14.7)	9(26.5)	34(100)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43(20.3)	76(35.8)	65(30.7)	28(13.2)	212(100)	2.381 (df=3)
	경험이 없다	10(24.4)	10(24.4)	16(39.0)	5(12.2)	41(100)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21(15.4)	42(30.9)	49(36.0)	24(17.6)	136(100)	15.079* (df=6)
	중요하다	31(28.7)	39(36.1)	31(28.7)	7(6.5)	108(100)	
	중요하지않다	1(12.5)	4(50.0)	1(12.5)	2(25.0)	8(100)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7(28.0)	9(36.0)	6(24.0)	3(12.0)	25(100)	7.653 (df=9)
	학교의 비협조	14(20.9)	19(28.4)	23(34.3)	11(16.4)	67(100)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5(14.7)	16(47.1)	12(35.3)	1(2.9)	34(100)	
	기타	26(21.5)	41(33.9)	39(32.2)	15(12.4)	121(100)	

*p<.05 **p<.01 ***p<.001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chi^2=19.408^{**}$, $df=6$),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chi^2=16.953^{**}$, $df=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 차이

단위: 명(%)

문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χ^2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청소년수련관	67(52.3)	44(34.4)	17(13.3)	128(100)	19.408** (df=6)
	청소년문화의집	20(36.4)	23(41.8)	12(21.8)	55(100)	
	청소년수련원	6(35.3)	2(11.8)	9(52.9)	17(100)	
	기타(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	15(53.6)	8(28.6)	5(17.9)	28(100)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97(49.0)	68(34.3)	33(16.7)	198(100)	4.818 (df=2)
	경험이 없다	11(36.7)	9(30.0)	10(33.3)	30(100)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6(30.0)	4(20.0)	10(50.0)	20(100)	16.953** (df=6)
	학교의 비협조	26(41.9)	23(37.1)	13(21.0)	62(100)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17(60.7)	9(32.1)	2(7.1)	28(100)	
	기타	57(50.4)	38(33.6)	18(15.9)	113(100)	

*p<.05 **p<.01 ***p<.001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chi^2=14.484^{**}$, $df=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등)에 따른 응답차이

단위: 명(%)

문항	구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기타	합계	χ^2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121(54.0)	58(25.9)	16(7.1)	29(12.9)	224(100)	14.484** (df=3)
	경험이 없다	20(45.5)	5(11.4)	10(22.7)	9(20.5)	44(100)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83(56.8)	28(19.2)	17(11.6)	18(12.3)	146(100)	11.276 (df=6)
	중요하다	53(47.3)	35(31.2)	8(7.1)	16(14.3)	112(100)	
	중요하지않다	5(55.6)	0(0.0)	1(11.1)	3(33.3)	9(100)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1순위)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11(42.3)	4(15.4)	4(15.4)	7(26.9)	26(100)	12.856 (df=9)
	학교의 비협조	32(46.4)	18(26.1)	6(8.7)	13(18.8)	69(100)	
	학교-청소년기 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24(68.6)	4(11.4)	3(8.6)	4(11.4)	35(100)	
	기타	71(54.2)	35(26.7)	11(8.4)	14(10.7)	131(100)	

*p<.05 **p<.01 ***p<.001

4)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설문지 문항은 8개의 소영역으로 33문항이다. 8개의 영역은 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평가, 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제도마련이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실시하고 Borich 산출공식을 통한 가중치를 고려한 후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종합하여 중요도와 실천도 분석(IPA)으로 8영역의 33항목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요구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적 우선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IPA 기법 등을 활용한 기존 방식(성열관 외, 2013)에 가중치를 고려한 중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요구의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의 내용과 개수를 제시하는 기준을 제공함(교육부, 2013; 김수자·우명숙, 2013)으로써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이나 모색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의 분석(IPA)을 위한 좌표평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와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또는 그래프, 표로 제시하였다. IPA를 통하여 2차원 도표 4분면 위에 X축(중요도), Y축(현재 실천도) 위에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한 좌표값을 표시함으로써 우선순위결정에 도움을 받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분석에서 t 검정 및 Borich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과 그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개의 항목 모두였다. 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11.36***에서 27.54***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32)안전대책, 29) 평가방법 개발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5위, 9위, 14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1위, 15위, 9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t 검정의 경우 두 수준간이 차이만을 반영한 반면 Borich의 요구도는 바람직한 수준(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t 검정의 값을 활용하여 요구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Borich 공식 등의 가중치를 두어 우선순위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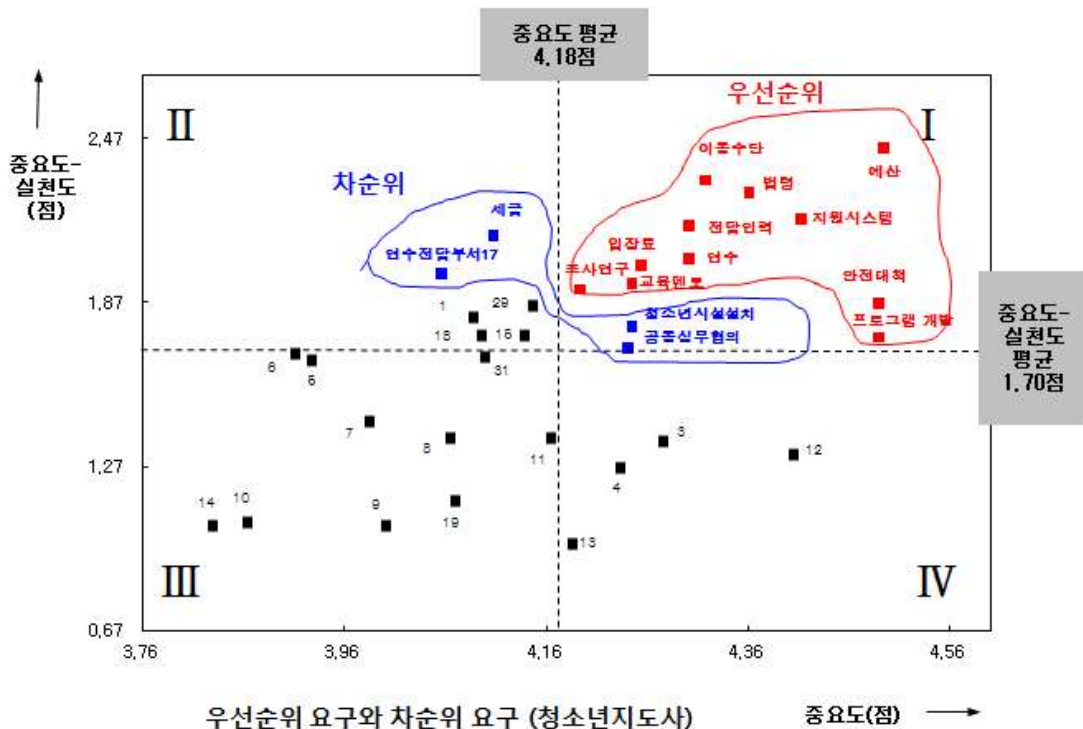
표 13

청소년지도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영역	내용 세부항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기관장 연수	2.26	1.09	4.10	0.93	1.84	1.49	19.94*	7.44	16
	2)전담 인력	2.20	1.16	4.28	0.94	2.11	1.53	22.15*	9.25	5
	3)업무 전문성	2.90	1.04	4.26	0.84	1.37	1.28	17.25*	5.85	23
	4)업무 지속성	2.98	1.10	4.22	0.89	1.22	1.36	14.35*	5.38	28
실무 역량 육성	15)컨설팅 전문가육성	2.40	1.08	4.13	0.88	1.73	1.46	19.21*	7.26	17
	16)실무자 연수	2.24	1.02	4.27	0.84	2.04	1.40	23.23*	8.73	6
	17)연수 전담부서	2.06	0.95	4.01	0.95	1.96	1.43	22.02*	8.01	12
	33)교육멘토 양성	2.30	0.99	4.22	0.91	1.93	1.40	22.34*	8.23	10
프로 그램 개발	9)프로그램 공모사업	2.96	1.14	3.99	0.92	1.03	1.27	13.12*	4.22	30
	12)프로그램 운영	3.07	1.07	4.37	0.76	1.30	1.26	16.74*	5.80	24
	30)프로그램 개발	2.75	1.02	4.48	0.73	1.74	1.28	21.76*	7.82	13
프로 그램 운영	7)인솔도우미 봉사단	2.54	1.11	3.94	0.89	1.41	1.29	17.69*	5.73	26
	8)재능기부 봉사단	2.67	1.07	4.06	0.83	1.40	1.31	17.24*	5.62	27
	11)청소년 사전교육	2.80	1.12	4.13	0.85	1.34	1.35	16.04*	5.74	25
	14)결과에 대한 발표회	2.77	1.11	3.81	0.99	1.03	1.31	12.74*	4.04	33
	18)교육멘토 사전 협의	2.32	0.95	4.05	0.80	1.75	1.33	21.07*	7.19	19
	25)이동수단	2.00	1.04	4.26	0.95	2.29	1.46	25.35*	10.01	2
	26)입장료록	2.23	1.01	4.23	0.90	2.03	1.34	24.34*	8.52	8
프로 그램 평가	10)체험활동 평가반영	2.81	0.99	3.84	0.97	1.01	1.34	12.18*	4.13	32
	13)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20	1.13	4.16	0.84	0.96	1.38	11.36*	4.15	31
	29)평가방법 개발	2.30	0.92	4.14	0.87	1.86	1.33	22.42*	7.74	14
	31)학교-체험활동기관 과 공동평가	2.42	0.97	4.10	0.92	1.69	1.41	19.26*	6.86	20
체험 기관 인센 티브	5)체험기관 인센티브	2.27	1.05	3.92	1.01	1.66	1.52	17.51*	6.54	22
	6)인증마크	2.21	1.04	3.91	0.99	1.70	1.43	19.21*	6.59	21
	21)체험기관 세금감면	2.00	1.02	4.12	0.94	2.14	1.46	23.66*	8.69	7
협력 체계	19)사업 MOU 협정	2.89	1.17	4.05	0.92	1.17	1.39	13.55*	4.68	29
	20)공동실무협의회	2.51	1.10	4.21	0.85	1.71	1.41	19.41*	7.22	18
제도 마련	22)법령 개정·제정	2.11	0.99	4.35	0.78	2.24	1.34	27.02*	9.92	3
	23)지원 시스템	2.28	1.03	4.40	0.77	2.13	1.35	25.44*	9.60	4
	24)조사연구	2.29	0.93	4.16	0.85	1.88	1.35	22.51*	8.04	11
	27)청소년활동시설 설 립확대	2.44	1.07	4.22	0.98	1.79	1.50	19.24*	7.56	15

*p<.001

Locus for Focus 모델과 Borich 요구도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를 [그림 5]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의 필요수준 평균과 불일치 수준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좌표평면으로 구분한 결과 I 사분면에 포함되는 역량은 총13개였다.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이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는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시설 설치, 20)공동실무협의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11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우선 요구사항과 차순위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지원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에 근거한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과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 청소년지도사의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

(2) 교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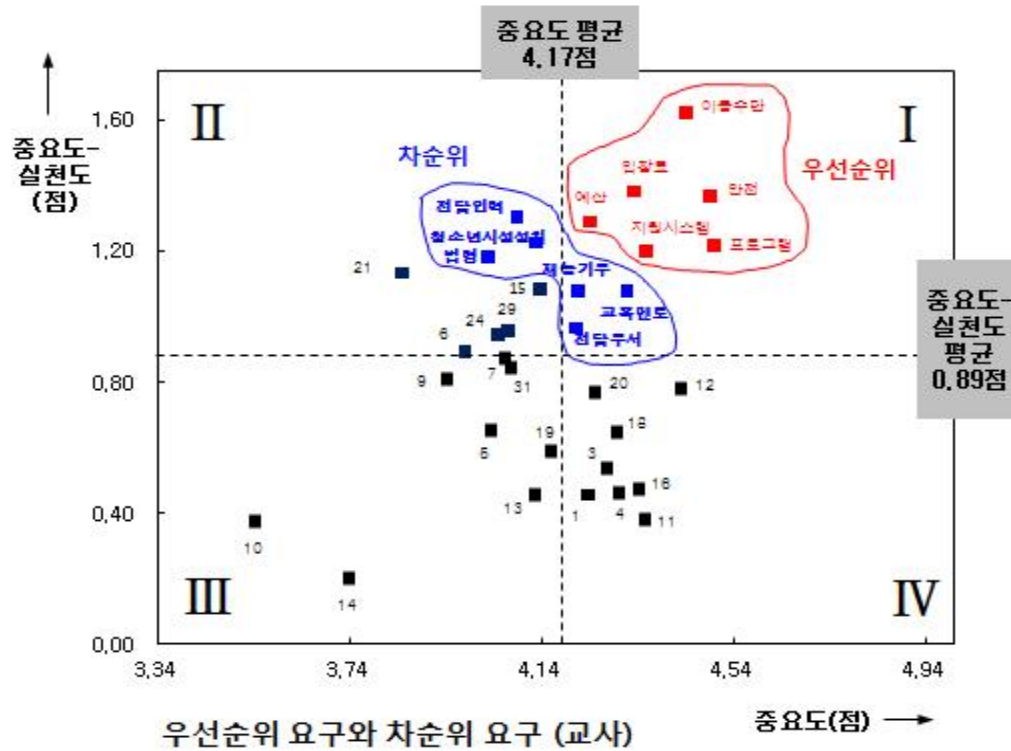
교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분석에서 t 검정 및 Borich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과 그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개의 항목 모두였다. 총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3.33***에서 16.34***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22)법령개정, 33) 교육멘토 양성, 8) 재능기부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6위, 9위, 10위, 11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1위, 12위, 7위, 9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림 6]와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으로 6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 개정·제정-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6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내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영역	세부항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전문성 확보	1)학교장 연수	3.78	0.90	4.24	0.78	0.45	0.88	7.32*	1.93	29
	2)전담 인력	2.78	1.36	4.09	1.02	1.30	1.44	12.86*	5.33	6
	3)업무 전문성	3.74	0.92	4.27	0.80	0.53	0.87	8.82*	2.30	26
	4)업무 지속성	3.83	0.92	4.30	0.77	0.46	0.82	8.10*	2.00	28
실무 역량 육성	15)컨설팅 전문가육성	3.05	1.03	4.14	0.87	1.08	1.18	13.04*	4.48	12
	16)실무자 연수	3.86	0.88	4.34	0.78	0.47	0.86	7.87*	2.06	27
	17)연수 전담부서	3.25	1.09	4.21	0.81	0.96	1.15	11.98*	4.07	14
	33)교육멘토 양성	3.24	1.03	4.32	0.87	1.07	1.12	13.75*	4.66	10
프로그램 개발	9)프로그램 공모사업	3.13	0.98	3.94	0.90	0.80	1.04	11.10*	3.19	22
	12)프로그램 운영	3.65	0.93	4.43	0.77	0.77	0.94	11.78*	3.45	20
	30)프로그램 개발	3.28	0.95	4.50	0.79	1.21	1.09	15.88*	5.47	4
프로그램 운영	7)인솔도우미 봉사단	3.18	1.06	4.06	0.91	0.87	1.15	10.86*	3.56	17
	8)재능기부 봉사단	3.14	1.01	4.22	0.83	1.07	1.15	13.33*	4.55	11
	11)청소년 사전교육	3.97	0.90	4.35	0.74	0.38	0.76	7.15*	1.66	31
	14)결과에 대한 발표회	3.53	0.96	3.74	0.96	0.20	0.86	3.33*	0.75	33
	18)교육멘토 사전 협의	3.65	0.95	4.29	0.75	0.64	0.90	10.26*	2.78	23
	25)이동수단	2.82	1.17	4.44	0.82	1.62	1.41	16.34*	7.21	1
	26)입장료	2.95	1.09	4.33	0.90	1.38	1.32	14.90*	5.99	3
프로그램 평가	10)체험활동 평가반영	3.16	1.01	3.54	1.05	0.37	0.99	5.40*	1.34	32
	13)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67	0.88	4.12	0.80	0.45	0.81	7.99*	1.88	30
	29)평가방법 개발	3.11	0.99	4.07	0.93	0.95	1.11	12.28*	3.89	15
	31)학교-체험활동기관 과 공동평가	3.23	1.04	4.07	0.92	0.84	1.02	11.84*	3.45	19
체험 기관 인센티브	5)체험기관 인센티브	3.38	1.05	4.03	0.85	0.65	0.91	10.16*	2.63	24
	6)인증마크	3.09	1.08	3.98	0.91	0.89	1.13	11.22*	3.55	18
	21)체험기관 세금감면	2.72	1.07	3.85	0.97	1.13	1.30	12.43*	4.36	13
협력 체계	19)사업 MOU 협정	3.57	0.99	4.16	0.90	0.58	0.94	8.88*	2.45	25
	20)공동실무협의회	3.48	1.02	4.25	0.80	0.77	1.01	10.80*	3.27	21
제도 마련	22)법령 개정·제정	2.85	1.08	4.03	0.94	1.18	1.31	12.84*	4.76	9
	23)지원 시스템	3.16	1.12	4.36	0.87	1.20	1.28	13.35*	5.23	7
	24)조사연구	3.10	0.98	4.05	0.90	0.94	1.07	12.57*	3.83	16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90	1.00	4.13	1.02	1.22	1.22	14.31*	5.06	8

* $p < .001$



[그림 6] 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 (교사)

(3)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 개의 항목 모두였다. 이들은 모두 t 값이 12.31 이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정 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낮게 나타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총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12.31***에서 29.26***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24)조사연구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5위, 13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2위, 10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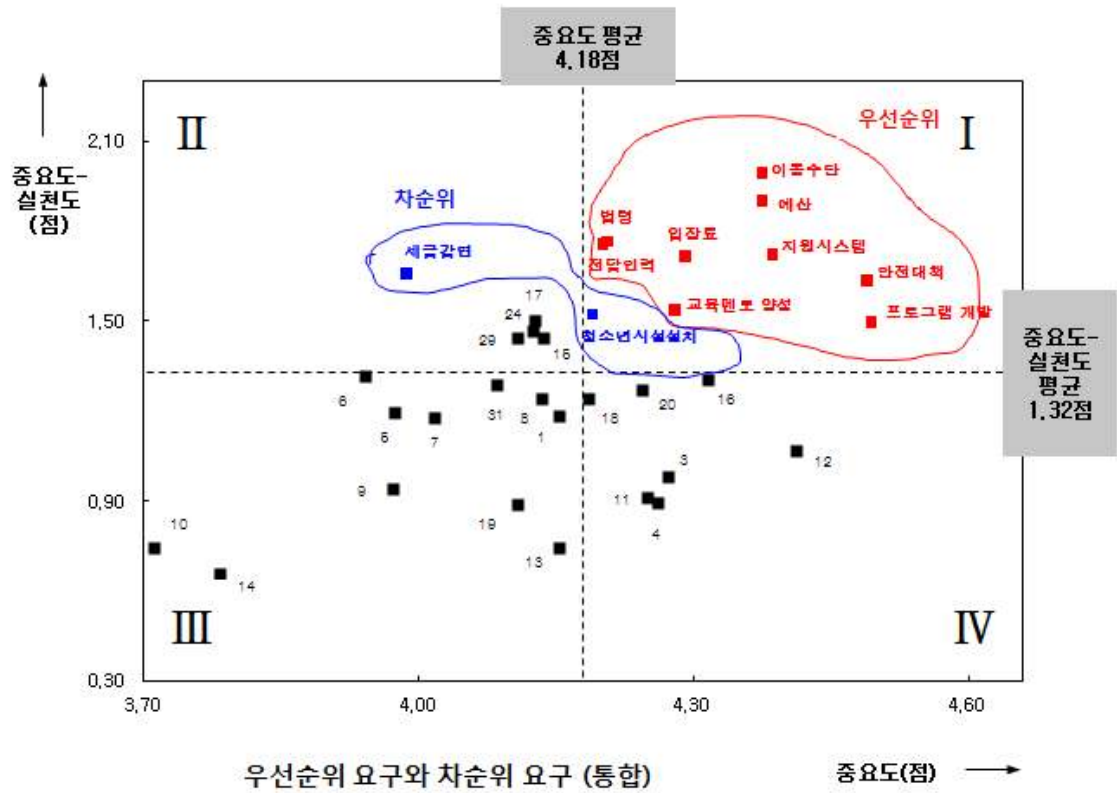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조사 분석결과, [그림 7]과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시설 추가설치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2개 항목은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영역	내용 세부항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학교장(기관장) 연수	2.87	1.31	4.13	0.93	1.26	1.46	18.84*	4.92	22
	2)전담 인력	2.41	1.31	4.16	1.05	1.75	1.59	23.97*	7.37	5
	3)업무 전문성	3.20	1.15	4.23	0.90	1.02	1.27	17.58*	4.20	26
	4)업무 지속성	3.26	1.23	4.24	0.88	0.97	1.33	15.94*	3.81	28
실무 역량 육성	15)컨설팅 전문가육성	2.64	1.16	4.11	0.92	1.47	1.40	22.93*	5.96	14
	16)실무자 연수	2.87	1.33	4.27	0.88	1.40	1.47	20.76*	5.63	16
	17)연수 전담부서	2.51	1.23	4.07	0.95	1.56	1.43	23.78*	6.21	12
	33)교육멘토 양성	2.65	1.17	4.24	0.93	1.59	1.38	25.13*	6.58	10
프로 그램 개발	9)프로그램 공모사업	2.98	1.14	3.95	0.95	0.97	1.22	17.28*	3.74	29
	12)프로그램 운영	3.26	1.14	4.37	0.81	1.11	1.21	20.06*	4.71	25
	30)프로그램 개발	2.92	1.10	4.45	0.86	1.52	1.29	25.76*	6.73	8
프로 그램 운영	7)인솔도우미 봉사단	2.76	1.97	3.98	0.94	1.21	1.29	20.45*	4.73	24
	8)재능기부 봉사단	2.82	1.13	4.10	0.89	1.28	1.29	21.56*	5.13	21
	11)청소년 사전교육	3.25	1.25	4.21	0.85	0.95	1.26	16.49*	3.88	27
	14)결과에 대한 발표회	3.05	1.18	3.76	1.01	0.71	1.26	12.31*	2.49	33
	18)교육멘토 사전 협의	2.82	1.24	4.13	0.85	1.30	1.32	21.57*	5.18	20
	25)이동수단	2.31	1.20	4.31	0.96	2.00	1.49	29.26*	8.72	1
	26)입장료록	2.48	1.16	4.26	0.94	1.77	1.38	27.92*	7.35	6
프로 그램 평가	10)체험활동 평가반영	2.91	1.08	3.68	1.07	0.76	1.31	12.72*	2.77	32
	13)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34	1.14	4.13	0.86	0.78	1.24	13.75*	3.08	31
	29)평가방법 개발	2.59	1.10	4.08	0.95	1.49	1.34	24.20*	5.92	15
	31)학교-체험활동기관 과 공동평가	2.72	1.14	4.07	0.96	1.35	1.35	21.77*	5.27	18
체험 기관 인센 티브	5)체험기관 인센티브	2.69	1.25	3.93	1.01	1.24	1.41	19.22*	4.74	23
	6)인증마크	2.54	1.19	3.92	0.99	1.37	1.39	21.48*	5.19	19
	21)체험기관 세금감면	2.27	1.14	3.99	0.99	1.71	1.48	25.22*	6.60	9
협력 체계	19)사업 MOU 협정	3.10	1.25	4.06	0.98	0.96	1.29	16.23*	3.65	30
	20)공동실무협의회	2.85	1.26	4.18	0.93	1.33	1.37	21.17*	5.38	17
제도 마련	22)법령 개정·제정	2.39	1.14	4.20	0.90	1.81	1.45	27.10*	7.42	4
	23)지원 시스템	2.61	1.20	4.36	0.86	1.75	1.42	26.78*	7.55	3
	24)조사연구	2.59	1.09	4.09	0.91	1.50	1.34	24.36*	6.04	13
	27)청소년활동시설 설 립확대	2.59	1.12	4.16	1.03	1.57	1.44	23.76*	6.38	11

* $p < .001$



[그림 7]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통합)

3. 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의 청소년 기관(100개)의 청소년지도사(271명), 전국 17개 광역 자치도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74개)의 교사(204명)이다. 조사방법은 청소년지도사는 조사원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이며, 교사는 서울시교육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7월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지도사, 교사), 둘째,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기관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청소년지도사, 교사), 넷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를 제시하였다.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지도사, 교사)

- 청소년지도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있음(83.6%) 학교연계는 중요함(96.6%)
- 교사: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지역연계는 중요함(98.6%)
교사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학기당 1-2회(16.7%), 주1회 이상(8.8%), 월2회(7.8%), 주2회 이상(4.9%), 없음(1.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지도사(100개 기관의 271명)의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표 3>
- 교사(74개 학교의 204명)의 지역분포는 17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8.0%), 중소도시(21.3%), 읍면지역(30.7%)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표 4>

2)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비협조(22.89%),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15.22%), 예산부족(12.66%) 순으로 나타남.<표 5>
-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 예산부족(9.49%) 순으로 나타남.<표 6>
-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은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 진로활동(교내)(12.25%) 순으로 나타남
수업방법 개선, 지역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약25% 이상씩 함께 실시하고 있음.<표 7>

3)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학교, 청소년기관)

- 교사를 조사한 결과,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차이는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기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음.<표 8>
=>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규모(42.4%), 소규모(32.9%), 대규모(24.7%) 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교의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 영역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음.<표 9>
=>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영역에서 수업방법개선은 대도시(49.1%), 중소도시(30.2%), 읍면지역(20.8%)로 순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체험활동은 대도시(47.4%), 읍면지역(36.8%), 중소도시(15.8%) 순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차이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음.<표 10>
=>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2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학교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학교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는 5-9명(36.1%), 5명 미만(28.7%), 10-19명(28.7%), 20명이상(6.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지역연계 체험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음.<표 11>

=>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는 대도시(41.9%), 중소도시(37.1%), 읍면지역(21.0%) 순으로 나타났음.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은 대도시(60.7%), 중소도시(32.1%), 읍면지역(7.1%)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은 읍면지역(50%), 대도시(30%), 중소도시(20%)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은 대도시(52.3%)에 많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중소도시(41.8%)에 위치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읍면지역(52.9%)에 주로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차이**는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에서 나타났음.<표 12>

=>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있다는 응답은 청소년수련관(54.0%), 청소년문화의집(25.9%), 청소년수련원(7.1%) 순으로 나타났음.

4)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최우선순위로 제시하고, 한쪽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차순위 요구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1) 청소년지도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 **청소년지도사의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지도사의 요구분석 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 20)공동실무협의, 27)청소년활동시설 설치로 4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2) 교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 **교사의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으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 **교사의 요구분석 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 개정·제정,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3)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조사 분석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조사 분석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1)참여기관 세금감면, 27)청소년활동시설 추가설치로 2개 항목으로 나타났음.

표 16

우선순위와 차순위 고려사항(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구분	최우선순위	차순위	특징 (차별적으로 나타난 항목)
청소년 지도사	28) 예산배정 (1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5) 이동수단 (4순위) 26) 입장료 (5순위) 16) 실무자 연수 (6순위) 24) 조사연구 (7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8순위) 2) 전담 인력 (9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10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11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2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3순위) 20) 공동실무협의회 (14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5순위)	◇교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16) 실무자 연수 24) 실태 조사연구 20) 공동실무협의회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32) 안전대책 (2순위) 26) 입장료 할인 (3순위) 30) 프로그램개발 (4순위) 28) 예산배정 (5순위) 23) 지원시스템 (6순위)	2) 전담인력 (7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8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9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10순위) 8) 재능기부 (11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2순위)	◇청소년지도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8) 재능기부
통합 (지도사와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28) 예산배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4순위) 2) 전담인력 (5순위) 26) 입장료 할인 (6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7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8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9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0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11순위)	◇청소년지도사 한쪽에서만 나타난 항목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적 입장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고려사항은 <표 15>와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교사와 다른 항목은 최우선순위에 16)실무자연수, 24)실태 조사연구가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20)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가 제시된 점이다.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5개), 실무역량육성(2개), 프로그램운영

(1개), 프로그램개발(1개), 전문성확보(1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실무자연수 등의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 입장에서 세금감면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동실무협의회 등 학교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라는 학교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배정, 법령, 지원시스템에 대한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사의 경우 청소년지도사와 다른 항목은 25)이동수단과 32)안전대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점이다. 교사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3개), 프로그램운영(2개), 프로그램개발(1개)로 나타났다. 또한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와 33)교육멘토 양성에 대한 항목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멘토의 의미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진로교육담당자, 청소년지도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이는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근처의 지역자원 인프라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교육활동을 할때에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교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체험기관은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기업체 등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체험기관의 입장에서 학교연계를 할 때는 지역체험기관의 설립목적과 자원 등의 특성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연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활동시설과의 학교연계 활동은 한두번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활동시설이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과 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과 공간 등의 인프라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 체험기관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현재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하고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이지만 점차 지역사회공동체에 속해있는 지역체험기관의 특성별 연계협력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셋째,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한쪽에서만 나타난 항목은 21)체험기관 세금감면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4개), 프로그램 운영(2개), 프로그램개발(2개), 전문성확보(1개), 실무역량육성(1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수자,우명숙(2012).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지방정부연구, 16(3), 165-189.
- 교육부(2013). 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
- 성열관,김성기,백병부,황여정,배희철,이형빈(2013). 강원교육 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 강원도교육청·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제발표3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협력 방안

최상덕 소장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협력방안

최 상 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

지난 7월에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제5차 자유학기제 포럼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학교교육 관계자와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들 간에 기존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발전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개방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진 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다음 토론이 시사점을 주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단체의 토론자가 기존의 학교와 청소년기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기관들만의 노력으로는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이 있었음을 학교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자유학기제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기대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토론자가 향후에는 학교가 청소년기관들에게 “가까이하고 싶은 당신”이 되도록 노력할테니 청소년기관들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들이 그동안 가까운 이웃임에도 소원한 남남처럼 지내던 관계에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서로 윈-윈 하는 파트너 관계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단초는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과 이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정책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 변화가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적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필요가 있다. 영국 사람들은 부부를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 흔히 파트너라고 칭하는데, 이는 우리가 파트너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부부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독립된 인격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트너십이란 본래 각기 다른 목적과 임무를 가진 주체들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에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목적과 임무를 가진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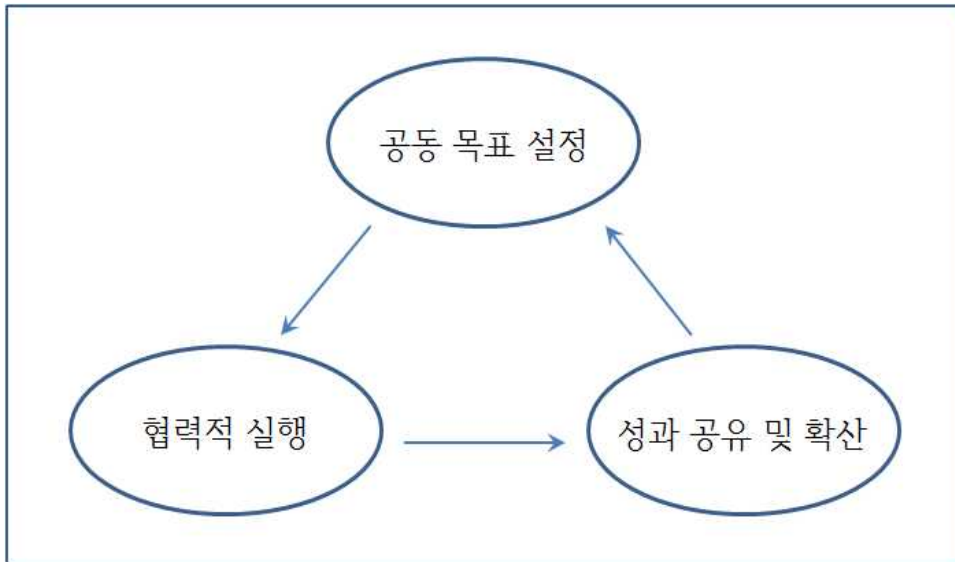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학교와 청소년기관들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하고, 그를 토대로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의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색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에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서로가 협력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할 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 기관 간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은 물론 체험활동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를 토대로 공동의 목표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동의 목표는 서로의 요구를 반영하되 가능하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람 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들 간에는 일방적 필요에 강제되거나 막연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실행 또한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 실행을 통해 공동 목표가 달성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 또는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력적 실행이 없이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상호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파트너십은 실행력을 갖기가 어렵다. 셋째, 성과는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성과가 일부에 의해 독점될 때는 파트너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의 공유를 토대로 성과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성과가 계속해서 공유되고 확산될 때 파트너 관계가 역동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

그림에서 보듯이,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실행하며, 실행의 결과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공동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동 목표 설정, 협력적 실행, 성과 공유 및 확산 단계 간에 선순환적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을 선순환적 파트너십 모델에 비추어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자유학기제 비전의 공유와 공동 목표 설정

1) 자유학기제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살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만 해도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진로탐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교육부, 2013). 이러한 목적이 정책적으로 강조된 데는 그동안 제기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과 성찰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학생들이 OECD PISA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학습 흥미도가 매우 낮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암기식 지식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사고력, 협업 능력, 공감능력 등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상덕 외, 2011). 또한 최근에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자살이 늘면서 학생들의 낮은 행복도가 이슈가 됨에 따라 학생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지필고사 부담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춘, 2013; 광병선, 2013; 황규호 외 2013; 최상덕 외 2014). 첫째,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교과 외 다양한 체험 및 실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향한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를 통해 학생의 창의, 협업,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방법 및 평가의 혁신을 추구한다. 셋째, 학교 스스로 교육 혁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한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사회 또한 파트너로서 학생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적극 참여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청소년기관들 역시 그동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관련 여러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김현철 외, 2010; 성은모 외, 2013). 또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갇힌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2학기에 운영한 연구학교의 학생들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수업방법의 변화와 흥미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학습동기 및 학습흥미를 높이고 진로탐색 역량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만족도 조사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영역별로 묶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만족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영역들이 수업방법, 진로탐색활동, 학습흥미와 몰입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사전 및 사후 조사 결과(영역별)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은 참여형 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매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학습흥미와 몰입이 크게 향상된 것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상덕, 2014). 이는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행복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칙센트미하이, 2007).

2)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전의 공유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교육부, 2013). 즉, 자유학기 동안에는 토론과 체험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된다. 실제로 현재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80개 연구학교 대부분은 학교 자율로 오전의 교과 수업은 토론, 체험, 실습 비중을 높이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과연계의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학교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공동 목표가 될 수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많은 시수를 배당하면서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측면에서 교과 활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0). 그러나 체험활동은 일반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해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활동, 주말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따라서 여기서는 체험활동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교과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하며, 직업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체험활동이 교과수업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율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최상덕 외, 2013). 자율과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의 폭과 범위를 교과를 넘어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자율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험활동은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을 갖도록 운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율과정을 구성하는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 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나 각 영역의 성격과 차별성을 간략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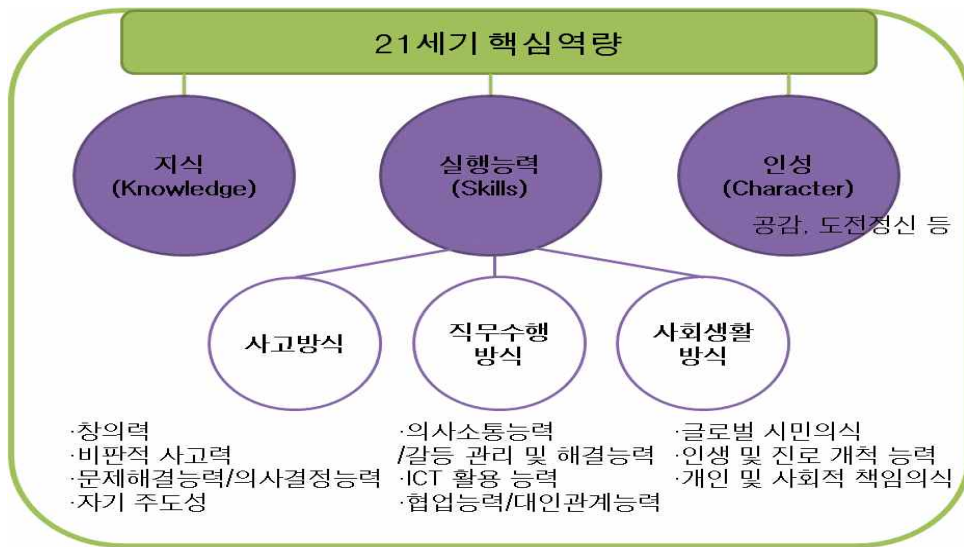
표 1 자율과정 비교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
목적 및 성격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학생들 간의 자치적, 자율적 활동 기회 제공	학생에게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기회 제공	학생에게 전문화된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습 내용	진로, 직업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운영 방법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교수자	교사 및 외부강사	학생중심의 운영, 교사는 지원자 역할	교사 및 외부강사	교사 및 외부강사

출처: 최상덕 외, 2014.

자율과정은 학교의 선택에 따라 각 영역별 비중을 다르게 편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은 물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행능력과 인성의 함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행능력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등으로 지식과 급변하는 현실 간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21세기 핵심역량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인성(character)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최상덕 외, 2013.

[그림 3] 21세기 핵심 역량의 구성요소

실행능력은 지식을 활용하고 사고(Thinking), 직무수행(Working), 사회생활(Living in the World)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학교/대학에서 키우는 능력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Griffin, P. et al., 2011). 또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은 다양한 문화와 삶을 공감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인성 교육은 전통적 규범을 가르치기 보다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전정신, 공감능력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역량과 관련하여 마틴 셀리그만(Seligman, M)의 “행복”(“웰빙”)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2002년에 『Authentic Happiness』라는 저서를 발간해 행복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2011년에는 『플로리시(Flourish)』라는 저서를 통해 주관적이고 순간적 쾌락을 의미하는 행복 보다는 지속적 행복을 의미하는 웰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셀리그만, 2011). 웰빙은 긍정적 정서, 참여(몰입), 관계, 의미, 성취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행복(웰빙)이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보다는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도록 할 수 있다.

셀리그만에 의하면 청소년을 행복(웰빙)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본인의 대표강점을 찾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표강점은 다양한 강점(셀리그만은 24가지로 구분)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점이며,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타고난 재능과는 구별된다. 대표강점은 여러 검사도구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대표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키워갈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강점 찾기를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활동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웰빙의 5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 정서는 인성 함양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참여는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관계는 협업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을, 의미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감능력을, 성취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4. 협력적 실행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제는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청소년기관을 포함해 17개 공공기관이 자유학기제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 문화재청 등 8개 중앙행정 처·청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협업체제 구축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협업체제 구축 모형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청소년기관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성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활동 및 입지적 여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며, 다음 [표 1]과 같이 2012년 말 현재 75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 공	485	177	215	42	27	16	8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2.12.31.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점은 지역별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학교가 노력한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3년 2학기에 운영한 42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 15개교가 청소년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은희, 2014). 이들 학교 중 2개교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그리고 다른 2개교는 인근 지역의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4개교가 지역의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머지 학교들은 청소년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연계협력 사례 중 2개 학교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잠실중과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사례는 학교가 선택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수련관이 기획하고 해당 전문 강사들을 연결시키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김기홍, 2014). 기획안은 본래 12차시로 구성되었지만, 학교 측의 사정으로 6차시로 축소한 프로그램을 대상을 달리해 2회 진행하였다. 강사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 진로코칭 모임을 통해 교섭하였다. 이 사례는 청소년기관이 학교와 지역의 프로그램 공급자(강사)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기획력이 있고 지역 인프라 확보(강사풀, 시설 등) 교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자유학기제가 확대될수록 지역 청소년기관이 학교와의 협력에 있어서 프로그램 기획자,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지역사회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교 측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넘어 프로그램 아이템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획과 조정능력이 중요해진다.

다음 사례는 부평동중과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운영한 부평 생활속 창의공작 플라자(이하 창공)에 관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부평동중과 접촉하여 성사된 경우이다.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2차 회의를 거쳐 양 기관 간 자유학기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 및 인성교육 관련 3개 영역의 프로그램(창의공작기계, 건축학개론, 난타타악과퍼포먼스)을 운영하였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기획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 운영할 기회를 얻은 한편, 학교는 무료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 한 사례가 되었다.

앞의 두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청소년기관들이 지역 코디네이터로서 학교와 프로그램 공급자를 잇는 허브 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관의 역할

지역 청소년기관이 허브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체험활동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가 체험활동과 관련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지역 체험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청소년기관들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와 강사 또는 체험처를 연계해주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하고자 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일부 체험활동은 학교 교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부 체험활동은 지역 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 청소년기관이 일부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프로그램 공급자(강사 또는 체험처)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와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시간 편제, 운영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청소년기관들이 학교와 지역 기관들을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체험처 발굴 및 연계,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5.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성과 공유 및 확산 전략 필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지식 전달) 보다는 '학생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학습자 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고, 지역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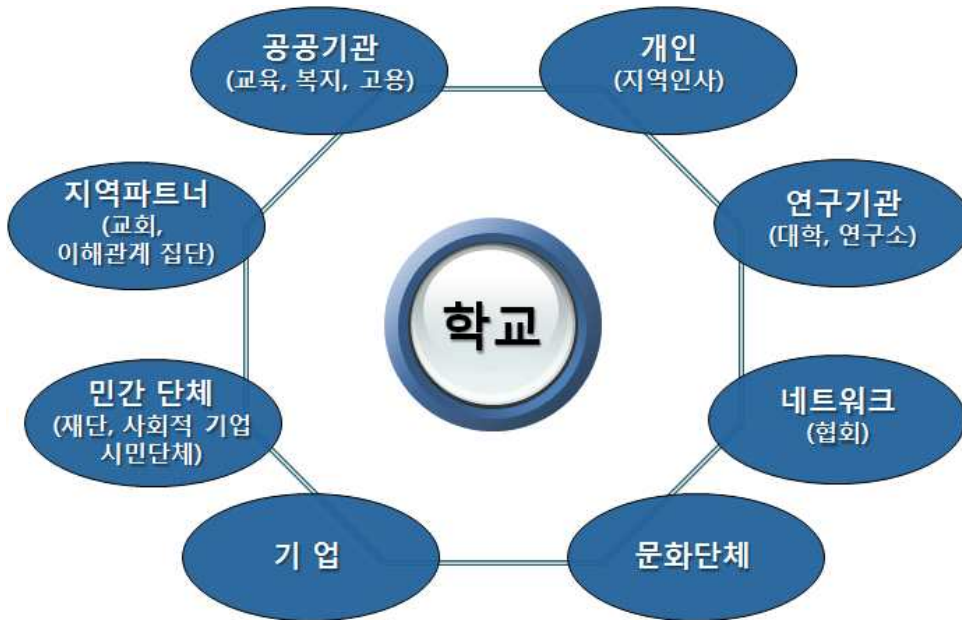
첫째, 학생 성과 보고를 다양한 형태로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체험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이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데이(PT Day) 행사 등을 하는 데, 이 경우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심사나 조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학생, 교사, 지역 관련 기관이 함께 진정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할 수 있는 교육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 공유 및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학교와 관련 기관들 간의 MOU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고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허브기관이 협의해 적절한 형태로 성과 공유 및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체험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의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관심있는 대상별로 적절한

형태의 좌담회, 세미나, 포럼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학습생태계로 변화시켜가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생태계란 자연생태계 개념을 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공급자 간에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인프라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망”을 의미한다(최상덕 외, 2013). 다음 [그림 6]에서 보듯이 학습생태계에서는 정규교육은 물론 비정규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학습자의 주도성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on, off-line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비정규 교육기관들도 학습생태계 속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6] 다양한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생태계

참 고 문 헌

- 곽병선(2013).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 158호.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김기홍. 청소년시설 담당자 관점의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워크숍자료집 14-S14.
- 김재춘(2013). 2013년 8월 7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연수 강의 내용.
- 김지숙. “창의공작 프라자”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워크숍자료집 14-S14.
- 김현철 외(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10-R08, 1-183.
- 마틴 셀리그만(저) · 윤상운 · 우문식(역)(2011). 플로리시. 물푸레
- 마틴 셀리그만(저) · 김인자(역)(2009). 긍정심리학. 물푸레.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0). 더불어 사는 삶, 미래를 여는 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서울: 경성문화사.
- 성은모 외(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수시과제 13-R19.
- 소경희 외(2013). 주요국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교육부.
- 정윤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체험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7(2), 73-95.
- 최상덕(2014). 연구·희망학교로 확대되는 자유학기제, 성과와 과제, 전망. 교육개발 2014년 봄호.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기본연구 2011-01.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a). 자유학기제 종합 운영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4-56.
- 칙센트미하이(저) · 이희재(역)(2007). 몰입의 즐거움. 해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진로체험 활동의 운영 현황과 실천 과제. 서울: 범신사.

- 한국교육개발원(2014).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4-09-3.
- 황규호 외(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교육부.
- 황은희(2014).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체험활동의 내용 및 현황.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워크숍자료집 14-S14.

토론문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토 론 자

이은주 (역삼청소년수련관 팀장, 창체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학교연계와 지역연계)

박헌순 (신길중학교 교감)

김정숙(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봉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김천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사무관)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이지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 사업실태와 바람

이 은 주 (역삼청소년수련관 팀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운영하는 법이 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청소년활동 전문시설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를 중요시하는 교육정책 덕에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주중에 청소년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낮은 풍경이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이 없다면 그 시설의 설립목적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청소년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학교! 학교에 청소년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전문가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활동공간과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하여 학교를 찾아 제안을 하면 학교의 반응은 냉담했다.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곳인지, 인증된 기관인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수없이 학교를 찾아가고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설명했다. 해가 가고 학교와의 만남도 수없이 많이 지고 한 번의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되고 점점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영역에서 학교와 연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서서히 변해 [창의적체험활동]이 시작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을 기획하고 시수를 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하는 등의 학사일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고민하는 전문가그룹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 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문화, 예술, 심리, 정서, 지역사회, 진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시설과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활동으로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변하는 교육정책과

예산의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적게는 2~3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토대가 한 순간에 사라지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 서울시교육청의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가 시작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를 기반을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로서 진로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은 활동의 큰 변화를 맞이한다. 교육청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와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과 너무도 쉽게 연계되고 이를 통해 일반학교들과의 연계도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이 힘들게 닦아 쌓아올리려던 것이 한 순간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고 많은 예산,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 놀라움은 이내 고민을 안겨주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목적에 대한 고민,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고민이었다.

현재 진로센터는 많은 역량과 시간을 청소년들의 현장직업체험을 위하여 직업체험장 발굴, 매칭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직업체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사업을 단순히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매칭하고 체험시켜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속에 매몰되고 성장되지 못하면 어떻하나라는 고민이었다. 진로를 진학 혹은 직업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줄일 수 없다. 비단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만이 아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참여와 활동, 통합의 크로스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하는 공통과정과 진로, 동아리, 예술체육과 같은 자율과정이 상생될 때 그것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단순체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현장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매칭시키는 것만이 아닌 공통과정의 전문가인 교사(학교)와 청소년활동의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수련시설)가 만나 청소년의 진로를 고민하고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와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녹아낼 때 이것이 진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사업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자유학기제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완한다면 훨씬 풍요롭고 다양한 청소년진로 프로그램이, 학교연계사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청소년정책,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청소년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학교연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마을’을 바탕으로 둔 자유학기제, 청소년 활동 방안

이 승 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1. 조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임지연 박사님의 원고를 중심으로 토론하겠다. 우선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짐작하던 것처럼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예상 수준 이상으로 학교교사 또한 지역연계의 중요성을 청소년지도사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응답했다는 점은 참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학교는 지역사회 학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모든 관계로부터 점차 단절되어 왔다. 일부지역과 학교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지역교육 공동체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는 대다수의 학교는 아직도 지역사회로부터 거의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을 속 섬 같은 학교 운영방식은 학교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학력지상 주의의 사회 풍토가 부추겨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학교는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주장은 아직도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지도자, 지역주민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공공연히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학교연계의 첫 번째 어려움으로 학교의 비협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 부족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비협조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학교연계를 해본 청소년지도자들은 ‘학교에 가서 장사꾼 취급 받았다.’, ‘청소년시설에서 보낸 공문은 아무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가있었다’는 등의 비슷한 경험을 소재로 푸념하고 있다. 학교의 상황과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학교가 말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진심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다. 개선은 지역연계를 담당하는 한명의 교사와 시범 사업을 하는 개별학교가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인식의 변화이겠지만, 정부(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의 연수,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국가기관으로서 표준화된 학교의 전체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시스템이 없고, 재정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지역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역협력 시스템을 요란하게 만들일은 아닌 것 같다. 기존에 지역마다 협력과 협의시스템이 있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 구체적인 개선점으로 정부전자공문시스템을 청소년시설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 밖에 지역사회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자유학기제나 청소년 활동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게 되어있기에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해볼만 하다. 일방적, 단체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교사들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여보자, 우선 지역특성과 자원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업무과다와 예산부족을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한다고 읽혀진다. 이 응답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말해온 학교 연계라는 활동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지역에서 하려는 것들만을 업무가 가중된 교사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들어준다. 청소년시설이나 지역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와의 협력을 만들어가는 일방적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학교교사와 소통하면서 그들이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을 하려고 할 때 실질적인 자원이 되어 주고, 지역 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담론의 수준을 높이고, 부족한 예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오히려 일을 줄이고, 더 큰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변화를 교사들이 경험하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는 나와 같은 개별기관과 지도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헌신된 노력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설의 특성을 좀 더 현대적 모형으로 해석하고, 개발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련활동, 수련관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부터 고쳐보면 어떨까?, 자연권 청소년수련원과 도심 속 청소년문화의집은 전면적으로 다른 특성임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운영 모형을 세분화 하는 것도 필요한 노력이다. 체육시설 대신 도서관 활동과 결합하는 것은 어떨까?, 활동 안전에 대한 규칙도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의 규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규모에서 협력과 연계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본시설인 문화의집은 주민센터 2층, 동네 유희공간을 개조한 최소규모로 만들어지기 십상이다. 지도자도 최소한의 법정기준만을 충족하느라 운영 시간 중 실무자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문화의집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일 조차

힘든 시설도 많다. 청소년 시설을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좀 더 지역과 연계토록 꿈꿔본다면, 가장 기본단위인 문화의집이 조금 규모 있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교가 접근하기에 매력 있는 시설로 구상되고,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도자들의 충분한 배치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이 시점이라면 청소년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수의 청소년시설들이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지역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요구들 중 인상적인 부분은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이다. 청소년지도자와 교사 동일하게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체험활동 차량을 2대 구비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적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노원구는 도시 전체를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도 있다. 지자체의 교육적 관심이 어떻게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쉬운 예가 된다. 또 조사결과 학교의 비협조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을 대도시에 근무하는 지도자들이 지역연계의 어려움으로 중소도시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했다. 그러나 노원구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기업, 주민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활동과 청소년활동에 조직적으로 연결하고도 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정책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참여한다. 교육지원청은 주민의 교육적 역량을 학교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마을이 학교다를 위해 학교의 교사, 지역청소년시설 운영자, 장학사, 관련부서 공무원(과장급)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단위의 교육공동체 형성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마을 단위의 교육적 협의 기구 구성과 활동을 촉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단위의 좋은 연결망 구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연결망은 좀 더 좁은 단위에서 구상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례는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사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앙 부처는 지역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체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구상했으면 한다.

2. 마을의 교육력을 키우는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이 되었으면

1)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의 터전은 ‘마을’ 이어야 한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진부한 문구에 분명 의미가 있다.(알렌스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교육학자 존 듀이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집-학교-학원을 순환하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은 자신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도전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모두 빼앗겨 버렸다. 자유학기제는 이 질문과 도전을 마을과 일상 속에서 회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마을에는 마을의 교육력이 있다. 어떤 마을에나 그러하다. 마을의 교육력은 학교와 학원, 청소년 시설들 그리고 몇 개의 전문적 서비스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이다. 청소년들에게 마을은 작은 우주이자, 세계이며, 가장 큰 학교다. 또 일상을 통해 배우는 최상의 배움터다. 청소년들의 경험은 마을과 일상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머리는 똑똑하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초이성적 바보라는 별명이 붙은 요즈음의 청소년세대들에게 마을과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작은 경험(인문적 경험)을 확장해가는 것보다 중요한 학습은 없다.

〈마을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천할 때 생각해 볼 것들〉

- ① 교육(활동)의 장은 마을이어야 한다. 도시거나, 시골이거나, 도농복합지역이거나 그 마을의 교육력이 있다. 학교와 교실, 청소년센터, 복지관, 가상의 진로교육 체험장 등의 경계에 매몰되면 안 된다.
- ② 자유학기제의 중심은 학교다. 학교는 직접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조직들과 소통하며, 만나고 그들의 변화와 교육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학교는 전문시설이나 단체 몇 곳과의 단편적 서비스 연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③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 하는 마을 속, 일상 속 프로젝트여야 한다.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한 작은 도전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맛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④ 마을의 공기(교육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경쟁적 교육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교육에 대한 마을 속 담론을 만들어 내야한다. 청소년에게만

정조준하기 보다, 교육활동의 대상을 선정할 때 상당부분 오조준이 필요하다. 꿈꾸는 마을, 꿈꾸는 학교, 꿈꾸는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이 꿈꾼다.

- ⑤ 서비스 보다는 교육력이다. 서비스의 확충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책임을 축소해왔다. 책임의 축소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교육력을 약화시켜왔다. 청소년센터와 학교는 서비스로 대신해주기 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생태를 가꾸는 일에 개인과 가정, 마을을 참여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방안 : 초기 실천 전략과 과업

가. 함께 할 소수를 발굴하고, 신뢰의 관계 맺기

대부분 네트워크를 기관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모든 지역에 청소년센터나 복지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마을의 현실적 요건에 맞추되, 특정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청소년이어도 좋고, 학부모여도 좋겠다. 일단 마을의 교육적 문제를 아파하면서 함께 해결해보자! 결국 마을의 교육력을 키워보자고 생각하는 소수는 어디서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나. 현실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지향을 만들기

우리 마을의 교육은 무엇이 장점이고, 약점인가?, 우리 마을은 무엇이 강점이고, 문제인가? 왜 협력해야하는가?, 왜 자유학기제인가? 등에 대한 공동의 성찰,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담론의 생성은 마을 회의나 공동학습, 지역사회교육 등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은 공동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공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다. 협력 실천의 지역적 범위 좁히기

협력 실천단위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개인적 활동의 경험으로 보자면 행정동 단위(마을) 이하가 적합했다. 실천 단위가 자치구, 시 등으로 너무 커지면 형식적이 될 우려가 크다. 실천 단위가 좁아지면 함께 할 수 있는 자원과 기관이 부족해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 마을의 주민회, 청년회, 상인회, 일반주민과 청소년들과도 협력을 실천 할 수 있다.

라. 사업과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재정 만들기

지역 공동의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재정이 일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은 경직되어 작지만 마을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유연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 실무자들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힘을 덜 쓰는 네트워크로 만들기

대부분의 실무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적지 않고 매우 바쁘다. 이들은 자칫하면, 별다른 변화 없이 네트워크가 회의만을 반복하는 실효성 없는 업무로 느낄 수 있다. 또는 상급 관청이다 다른 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자신들의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인식할 수 도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참여 동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회의시간 정하기, 이름표 만들기, 의전 등 형식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의사 결정을 네트워크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 협력의 작은 성공경험을 늘리고, 마을 활동가들의 관점과 역량 길러내기

그간의 네트워크에 참여했지만 소득이 없거나 변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다음의 협력 활동을 저해하는 매우 큰 위험 요소다. 성공의 경험을 쌓고, 여럿이 함께 만들어 낸 성취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참여한 마을의 주체들이 성공과 성취를 해석하는 힘도 필요하다. 또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는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을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 주도권 싸움에 빠지지 않기

좋은 일에도 경쟁이 한 창이다. 마을 공동의 유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3) 마을에 교육 활력을 불어 넣을 새로운 청소년 센터의 모색

자유학기제 실천의 주요 파트너로 많은 전문가들이 청소년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전국의 청소년시설 전부를 동원한다고 해도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학교와 지역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유학기제 시범사업을 하고,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전국으로 전면화하기는 불가능한 상상이다.

또 부끄럽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 있는 많은 수의 청소년시설들은 공공성이 흔들리고도 있다. 유스호스텔과 대규모 체육시설을 겸비한 복합형 수련시설 등이 전국에 세워지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은 대부분 자립형 수익구조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무리한 수익성 활동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무리한 수익추구는 안전하며, 공공성 강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의 창의체험인성교육, 이번 정부의 자유학기제 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시설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

설의 현실은 그 많은 기대와 관심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실정에 있다. 어쩌면 학교와 청소년시설만의 연대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전면적 활성화는 불가능한 꿈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대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면 전국에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 활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글쓰기가 일하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공공도서관이 병합되어 있어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모형이다. 우선 이러한 시설을 상상하고 전국에 10곳만 만들어보자(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심). 그리고 이 청소년센터들을 가칭 마을 교육력 센터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들의 주요한 실천 영역은 마을과 학교, 청소년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교육적 도전들이다. 이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 파이프라인이 되어 한 마을로 계속적인 재정과 인력, 아이디어들을 실어 나르며 열악한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제공하고 자극하게 될 것이다.

3. 자유학기제가 현실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길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현장과 청소년 활동이 새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논리로 설계된 그 동안의 승자독식 교육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청소년들의 참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의 내용도 진로교육에만 너무 치중해서 자칫 성공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훌륭하고,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전 인류에게 도전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태적인 것, 평화적인 것, 작지만 소중한 것, 지속가능한 것들을 다루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일은 교실 속에서는 어렵지만, 교실을 넘어 마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들이다. 자유학기제가 마을과 만나야 할 이유다.

학교 체험활동 시 지역사회와 청소년 기관의 역할

박 헌 순 (신길중학교 교감)

1. 들어가는 말

2013학년도는 중학교의 교육활동에서 큰 변화를 겪은 해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해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 커다란 변화 없이 실시되었던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기본으로 학교 행사 및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기존의 활동을 묶어 놓은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체험활동은 많이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체험활동의 실시가 가능해졌다.

대체 자유학기제는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을까? 첫째는 교실 수업의 변화이다.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칠판 중심에서 학생들의 책상 중심으로 수업이 옮겨가고 있다. 둘째는 학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교실과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교사만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교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사, 지역사회 단체들의 참여로 교수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는 교육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교육은 가르치고 배워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학생 스스로가 하는 활동 학습 즉, 자기주도 학습도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자유학기제의 여러 특징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체험활동’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펼치고

있는 체험활동은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 ‘체험활동’의 의미

그러면 체험활동이란 어떤 것인가? 학교에서는 보통 체험활동이라 하면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학생 활동으로 해석한다. 대체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이나 2학년 과정에서 실시되는 수학여행, 예전의 소풍과 같은 학기 중에 실시되는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등이 체험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체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①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체험 수기 ②<심리> 유기체가 직접 경험한 심적 과정. 경험과는 달리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이지 않은 근원적인 것을 이른다. ③<철학>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기 전의 개인의 주관 속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 과정이나 내용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를 ‘경험’과 구분하기 위해 다시 경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①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②<철학>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두 개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체험은 1회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체험이 쌓여 경험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성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경험적 지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체험활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지식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던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을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지칭한 것과 ‘가족동반 체험활동’을 허가한 것이 대체로 제7차 교육과정부터 라고 생각되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시초이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삶을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2013 경기도교육과정). 이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순환관계에 있으며, 교과 교육활동을 통해 습득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주관적인 지성으로 체화할 수 있다.

3. ‘체험활동’의 분류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유학기제 실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 이전

①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수학여행, 학생회 임원 수련회 등), ② 봉사활동, ③ 진로활동, ④ 동아리 활동, ⑤ 가족동반체험학습 ⑥ 청소년 단체 체험활동 등

2) 자유학기제 이후

자유학기제 이전의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① 교과 융합수업을 위한 체험활동(교과연계체험) ②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선택프로그램 체험활동 ③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예·체능 체험활동(문화예술 체험, 스포츠 체험 등) ④ 소규모 진로 직업체험 활동 ⑤ 학생 개인 체험활동(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 이후의 체험활동은 내용면에서나 활동 방법 면에서 자유학기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유학기제 이전이 주로 견학과 탐방 중심이었으나 자유학기제 이후는 소규모 학생 참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학교 ‘체험활동’의 한계

학교 체험활동을 활동 방법이나 활동 장소를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교과 교육활동을 보완해주는 교과연계체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체험, 복지기관 체험,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방법 체득과 여가 시간 활용 방법 모색을 위한 스포츠 활동 체험, 문화 예술 체험,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진로활동 체험, 직업 현장 체험 등과 생산기관 체험, 공공기관 체험,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체험, 환경활동 체험, 지역사회 탐방 체험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활동을 모두 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활동을 시키고

싶지만,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려면 교육과정 밖의 시간에서도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휴일이나 방학 중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을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육활동 이수시간으로 포함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교과 수업에 충실해야 할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 장소를 물색하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과 경비문제까지도 관여해야 한다. 인프라 개척과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 인근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 지역사회 및 청소년기관의 역할

지역사회나 청소년 기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제공해주거나 인프라 협력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체험활동들은 체험 시기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체험장과 체험을 위한 멘토, 시설 등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이를 특정한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협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특정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과연계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활동은 지역사회 복지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여가 시간 활용과 스포츠 기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은 체육관련 기관에서, 문화예술 체험은 예술기관에서, 과학기술 체험은 과학관련 기관에서 등등 기관의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 세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들을 잘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멘토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나가면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고 일반 사회에 홍보되면서 많은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신들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학교에

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학교들이 편승하여 자유학기제 자율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의 자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학교 교육활동 참여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자칫 교육활동보다 체험활동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고 체험활동은 교육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때다.

학교-청소년활동시설 연계 체험활동 활성화에서 중요한 점

김 정 속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1. 들어가는 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새로이 편성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했으며,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 상황에 따라 어느 학교에서는 수업방법 개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지원 덕분에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청소년활동기관과 학교가 보다 폭넓게 교류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청소년활동시설 연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은 각자의 분야에서 청소년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축적하여 왔다. 우리나라 교육의 대부분은 아직도 지식습득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교육 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미래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이미 축적된 지식은 예전만큼의 의미를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을 적용해보고,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청소년 교육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장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두 기관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오랜 시간의

거리만큼 먼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간격을 매우기 위한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음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꼽은 1순위는 예산 부족, 제도 미비 등이 아니라 '학교의 비협조'이다. 이는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이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무관심,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무지 또는 불신, 학교 정책이 해마다 급변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현 상황은 자유학기제 및 지역사회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기관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학교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학교교육의 내용도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 연계가 어렵다고 한 이유 중 3위는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이다. 그 만큼 두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을 넘어 두 기관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두 기관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입장에서 지역 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1위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2위는 '업무과다'(10.47%)이다.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에 실제로 체험할만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학교와 청소년 활동시설이 학생들이 체험할만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내려고 하는가하는 점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시설 및 도구 등이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구성해내려는 교육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면 충분히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은 우선적으로 소통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두 기관이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는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전문성에 대한 신뢰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욱 많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전년도에 계획한 대로 짝 짜인 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차년도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말부터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 기관에서 교육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은 단순히 체험활동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열린 마음과 열의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정책은 관리자에 따라, 업무담당 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관리자는 가능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업무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시설 측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만큼 학교 측의 업무 파트너의 전문성 또한 필수적이다. 청소년활동시설 측에서도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이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 더욱 교육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황 은 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자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달려온 길은 서로 달랐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서로 몰랐던 길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주제발표자 분들의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에 대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분석 결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협력방안을 선 순환적 파트너십 모델로 구체화시킨 연구결과는 앞으로 두 기관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발표에서 최상덕 소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전체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는 것과 미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주요 목적이 진로탐색이라고 생각하며 직업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에서 실시하는 체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진로탐색집중학년제의 실시와 더불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자칫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와 진로집중학년제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이에 대해 혼돈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임지연 박사님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의 1순위가 ‘학교의 비협조’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청소년활동 기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의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 기관의 프로그램 간의 불일치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이 협력적인 학생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교육과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청소년활동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와 자율과정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기관에서는 임지연 박사님의 연구결과 중 현재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교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 '수업방법 개선'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는 진로체험 뿐만 아니라 교과,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예술, 체육의 모든 분야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2013 연구학교의 체험 인프라 활용 유형을 살펴보면 직업체험 뿐만 아니라 교과 연계, 동아리 연계,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개선 및 교과 관련 체험활동 사례의 하나로 서울 동작중학교는 2013년에도 수학교과의 통계단원 학습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원 안보전시관, 의료보험관리공단 동작지사, 한국은행화폐박물관에서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다음과 같이 교과별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표 1 교과 연계 체험활동 예시

교과 연계	활동 내용
국어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배경 이해하기,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 뉴지엄미디어체험관 : 신문 방송 기자 체험 • 스스로넷미디어아카데미 : 방송 및 뉴스 제작 체험
수학	• 건축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학급별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시청, 종묘, 북촌 한옥마을, 동대문운동장, 덕수궁, 정동, 운현궁, 인사동 • 경복궁 : 경복궁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 탐구
과학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진로탐험 과학교실 후 관련 직업 탐색 • 보라매 안전 체험관 : 재난 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전문 체험(심폐소생술, 소방시설) 후 관련 직업 탐색 • 한국전력전기박물관 : 전기 에너지관, 전기 없는 생활 체험관 관람 후 관련 직업 탐색 • 삼성달라이트 : 모둠별 미션 활동을 통한 스마트 기기, 에코 IT 관련 체험 • 디지털파빌리온 : 최첨단 ICT 기술을 통한 미래 유비쿼터스 생활 체험

* 출처: 동작중학교 교과연계 진로체험학습 계획(2014)에서 일부 교과 발췌.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교과에서의 체험 이외에도 자율과정과 관련하여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 등에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소 등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2010년 5월)을 체결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오해섭, 조영아(2013)⁶⁾가 창의인성교육넷 창의적 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Resource Map)를 통해 서울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자원 현황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활동 프로그램이 전체의 59.70%, 동아리 활동 20.90%, 진로활동 11.23%, 봉사활동 8.17%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체험시설 프로그램이 43.4%, 전시공연시설 19.72%, 행정의료복지시설 10.8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지만, 그 동안의 학교 상황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과 교사가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 체험 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학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기관에서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동안 구축해왔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인프라를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켜 적용한다면 다양한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오해섭, 조영아(2013). 서울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자원 현황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1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지난해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학교 구성원의 희망을 받아 운영하는 희망학교 운영 첫 해로, 전체 중학교의 약 25%에 해당하는 800개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됩니다. '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가 2013년 5월 28일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은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학기 대상 42개 연구학교에서는 지역사회 환경,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상이한 모형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이는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평가 등 자율권을 부여하여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학습 및 상담에서 모색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가 활성화 됩니다.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서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 등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하며, 이 때 대학, 전문대학 등 지역 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학부모·지역

사회 직업인 멘토 활용으로 학생의 진로·직업관 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간접체험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 등을 활용하여 초청강의 및 특강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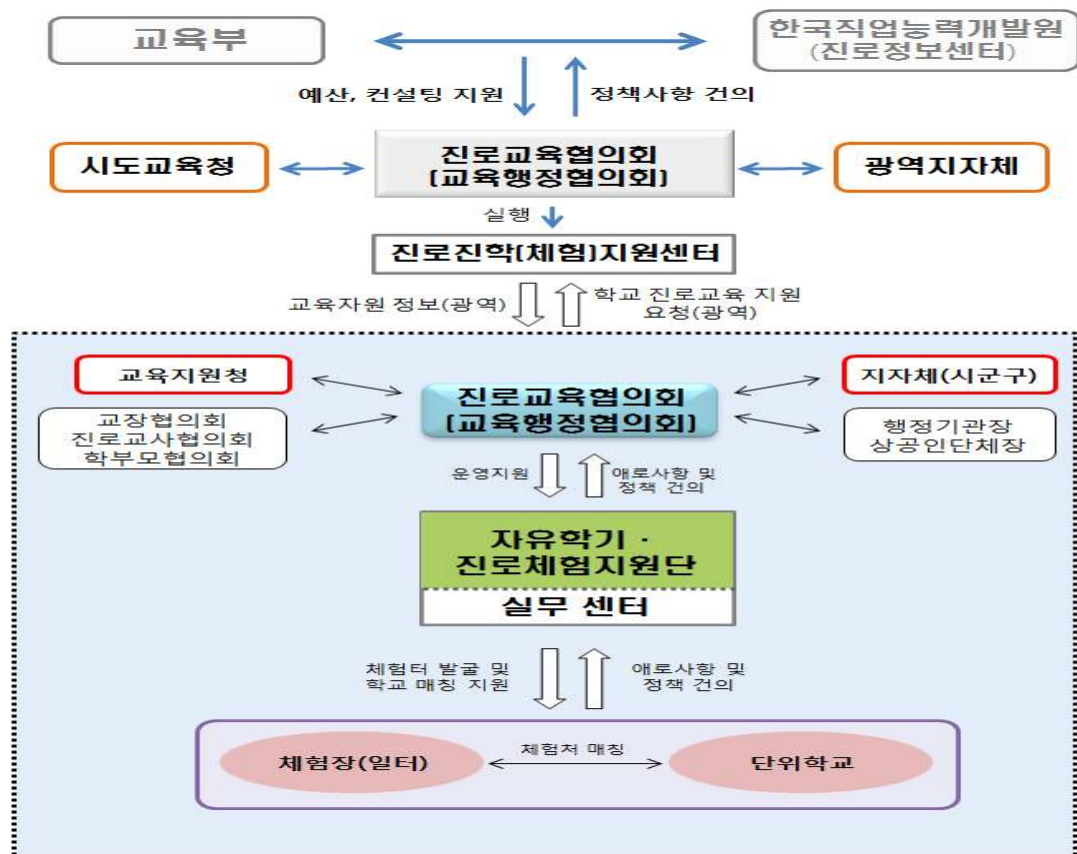
다양한 학생들의 작간접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 단체 등 중앙단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력으로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체험 인프라 확보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님의 발표에서와 같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유관 전문·연구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기관과의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교육기부 등을 통한 학교 지원방안도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국무회의 보고, '14.3.18)에서와 같이 중앙부처뿐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육행정체제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16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을 위해 현재 총 12개 교육지원청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운영 모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학생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협력체제 구축⁷⁾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1조⁸⁾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행정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교육관련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을 위해 기관장간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교육청, 자치단체, 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센터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를,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진로교육지원단'을 실무센터로 하여, 지역기반 학생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체험처 발굴 및 단위학교 연계를 지원합니다.

7) 「2014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제 구축·운영계획」('14.4.11, 진로교육정책과)

8)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은 학교의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센터로 ‘진로진입체험센터’와 같이 지원청·지자체가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청소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의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형으로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하되,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실무센터가 되어 진로체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학교와 교육기부자를 연결, 학생들의 진로체험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센터는 시청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방안을 우선 설명드렸으며, 이하에서는 발표하신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기관이 학교와 체계적이며,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학기('14년도 1학기)에 1학기 대상 전국 38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학교별 학생 체험처 발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당 평균 27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체험처 발굴이 교원의 업무부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제주도 희망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 시, 지역사회 자원 활용⁹⁾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및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p31의 표를 보면,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학교의 비협조와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도입을 계기로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학생 연계 체험활동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 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된다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적극 소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의 자치구·교육청 협력을 통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19개)와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사업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정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에 맞물려 평일 주간에 학교가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는 인근 학교와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¹⁰⁾

지난해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15년 전체 중학교의 약 50%내외, 그리고 '16년에는 3,173개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남원중학교(남원청소년문화의 집, 난타반 동아리), 무릉중학교(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 서귀포대신중학교(청소년수련관에서 난타, 댄스, 탁구, 포켓볼, 다도 등 동아리 활동을 진행)

10) 제4차 자유학기제 포럼('14.5.29),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대구교육연수원 연수부장 김차진)

지역 사회로부터의 ‘학교 연계’ 관점이 주는 새로운 시각

정 영 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1. 들어가는 말

이 세미나를 접하면서 가장 신선하게 와 닿는 것이 ‘학교 연계’라는 것이다.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게 되면 보통 또는 일반적으로 ‘지역 연계’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지역 연계’가 아니라 ‘학교 연계’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데서 또 다른 많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항상 학교 또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연계’를 생각해 왔던 토론자로서는 ‘학교 연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 연계’ 관점 및 형태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지역 기반으로서의 청소년 기관의 ‘학교 연계’ 관점 제고 필요

이 세미나에서 ‘학교 연계’를 다루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청소년기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 연계를 의식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지역 연계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기관이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교 연계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의 지역 연계든 청소년 기관의 학교 연계든 ‘연계’가 갖는 의미를 피상적인 수준이나 단지 성과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한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지역 연계’라고 했을 때 학교는 ‘지역의 시설의 이용한다’는 시각, 지역은 ‘학교에 시설을 제공한다’는 시각이 강했다고 본다. 말하자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마치 ‘연계’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오용된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 기관이 ‘학교 연계’라고 했을 때 분명 학교에서는 갖추지 못한 청소년 기관의 독특한 기능을 ‘학교’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 기관이 학교와 연계했을 때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청소년 기관이 수행하는 학교 연계 활동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기관도 ‘학교 교육에 기여하고 아동·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일정 부분 담당한다’(정영근 외, 2014: 129)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기관의 학교 연계 활동이 단순히 청소년 기관 활동의 외연적 확대가 아니라 학교 교육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활동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고 담당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청소년 기관의 ‘학교 연계’ 유형화 필요

청소년 기관이 ‘학교 연계’를 도모하면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학교 교육의 요구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학교 또는 청소년 기관 등), 프로그램 내용(교육과정, 수업방법, 체험활동 등), 기간(일회, 단기, 중기, 장기) 등 같이 생각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입체적 유형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연계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또는 어려운 것을 제공한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미래 진로 탐색력을 비롯하여 대인 관계력 및 사회 관계력, 직업 역량 등의 형성에까지 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당연히 청소년 기관으로 상정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학교의 학교 밖 활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계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면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발되는 또는 개발하고자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및 수업 방법, 학생의 어떤 특정 체험활동 등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수요자’, 즉 학교 및 학생의 요구에 터한 학교 연계 활동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4. 우선 순위 요구 항목의 실천적 방안 탐색 필요

주제 발표2(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에서 청소년 기관(청소년지도사)과 학교(교사)의 쌍방향적 측면에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한 우선 순위 요구 항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각각 우선 순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는 수궁이 간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첫째,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학교연계'로 접근한 것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연계'로 접근한 것의 차이 또는 괴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결과와 우선 순위 차이 또는 괴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접근의 방식을 설정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발표 주제가 '학교연계'인만큼 이 관점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보았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우선 순위는 수궁이 되면서도, 정작 궁금했던 것은 우선 순위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청소년 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가 가장 우선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수궁이 되었다. 다만 '학교의 비협조'가 어떤 형태로 왜 나타나고 학교의 협조적인 분위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궁금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으로 '예산배정', 법령개정·제정, 지원시스템, 버스 등 이동 수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우선 순위를 파악·제시한 것은 청소년 기관의 학교 연계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한다면 각 우선 순위에 대한 실천적 방안도 함께 탐색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5. 지역 사회가 갖는 교육적 기반의 구체화 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문제'를 '학교'의 책임으로 보고 과도하게 학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을 생각해 볼 때, 발표3(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협력 방안)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지역사회를 학습생태계로 변화시켜가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공감이 간다.

다만 ‘학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능력의 한계’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 토론자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면,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나는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적 기반 및 자원의 활용 측면이다. 이 관점은 발표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학생(아동·청소년)의 지역 사회로부터의 유리(遊離)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역’은 대단히 자연스런 일상생활의 활동 장소였다. 그렇지만 핵가족화 및 도시화, 아동감소 등의 진전으로 아동·청소년들은 급속히 지역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교-학원)에만 갇혀 지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래에는 지역이 갖는 교육적 기반을 아동·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청소년들은 그러한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갖는 교육적 기반을 체득하는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모가 요구된다. 이것이 ‘학교-지역 연계’가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갖는 교육적 기반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발표3의 [그림6](다양한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생태계)은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지역’으로 묶이는 것들이 ‘지역’이라기보다 다소 거대하고 추상적인 구도로 보인다. ‘단위 학교’를 축으로 하는 ‘지역’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정영근 · 이근호(2014).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관한 워크숍. 연구자료 ORM 2014-57. 109-131.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및 체험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토론

장 현 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현진입니다. 저희 기관도 2014년 들어서 추가로 '자유학기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진로직업정보센터'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이렇게 두 부서에서 자유학기제 및 학생의 진로탐색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발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한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연구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연구진의 많은 고민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의 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토론자로서 자유학기제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연계의 체험이 활성화 되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얻고 성장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해 나가는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학생의 앞으로의 진로탐색과 진로경로선택에 있어서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및 체험기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결과의 해석이나 이를 통한 방안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동수단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관리·운영에 있어 상당히 운용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 보입니다.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적 사업들에서 통학버스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 재원 마련, 버스기사 등 인력 문제, 어느 곳에 구비할 것인지에 관련한 관리운영 문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사고나 안전에 관해서 늘 노심초사 걱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체험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적정 수준으로 확립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고 체험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고, 운영 이전에 학교 내에서의 사전교육, 학생 맞춤형으로 잘 운영, 그리고 사후 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으로의 피드백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체험운영 기관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검증받고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체험 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하여 주고, 이를 통해서 타 프로그램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실제적 체험이 운영되기 위해 청소년수련기관이나 단체 뿐 아니라 소규모 일터체험도 필요할 것인데, 단위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솔도우미 봉사단, 재능기부 봉사단 등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로 이러한 대안을 이미 시행해 본 학교들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긍정/부정적 측면과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학교의 학생진로체험 등에 지원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교육을 하고 나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들을 활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나 중식비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연구의 조사에서는 담당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른 교사들이나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의 교사들, 나아가서는 다른 학년이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보면 초,중,고 전반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이러한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알고, 이로 인해서 향후 교육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될는지,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할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 담당 교원 뿐 아니라 중학교 모든 교원, 나아가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교원에 대해서도 별도 연수나 혹은 이미 잡혀진 다른 연수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체험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실현만 된다면 좋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 일반 교사와의 처우나 소속 문제 등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보입니다. 이보다는 이러한 전담인력은 지역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배치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도 이를 맡아서 전담하는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이는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로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게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진로교사가 메인을 담당을 하되 타 관련교사들이 역할분담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대규모 학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의 진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1명만 배치되어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학교는 이마저도 없는 학교가 있어 어려움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 체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자율적인 학교교육 지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재적 보상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보다는 내재적 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감사편지와 같은 것들이 더욱 장기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참여기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감사)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제혜택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체험기부 문화 조성에 문제가 되고,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이것이 활용되면 참여하지 않은 타 기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현판이나 기부기업(기관) 인증 마크 등은 도입해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지역사회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동종업체가 1-2개인 경우도 많은데 어디는 인증됐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 영역의 의미가 다소 무뎠진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생의 진로탐색과 지역사회 인식이 증진되고, 이것이 가능한 학교교육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표 7.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 영역>의 항목 가운데 진로활동(교내), 지역체험활동, 동아리 및 선택프로그램(교내)의 경우에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탐색을 중점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수업개선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진로경로와 관련하여 수업에서의 적성과 흥미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수업개선만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을 키우는 것이 교육인데, 과연 수업개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고 어떠한 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론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러한 도구적 변화와 함께 내용적으로는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과수업을 통해서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공)교육 개선이고 수업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사방법이나 내용진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립니다.

<표 8.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체험활동 방식에 따라 매우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가는 체험인지? 아니면 소규모 학생들이 동네의 중국집이나 슈퍼 등 일터를 체험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횟수로 보기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이나 해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5.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통합 요구 우선순위 분석>은 두 집단의 규모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차이분석과 Borich 요구도를 보기 보다는 차라리 각 집단별로 나온 결과 값을 표에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순위가 높은 것, 한쪽은 높고 한쪽은 중간인 것, 둘다 낮은 것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림 1]의 설문조사개요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의 표본추출이 '전수조사'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구학교의 교사는 많을 것인데, 여기서는 담당교사 중에서도 일부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라는 것이 연구학교로서 연구점수를 받는 교사만인 것인지, 자유학기를 맡는 교사들을 말하는지 등 명확한 대상설정과 표본추출 방식 기제가 필요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며, 현 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보다 긍정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흥미와 적성에 기반 한 능력향상 추구, 진로탐색과 체험을 통한 자신의 삶과 직업에 관한 인식 제고, 관심 분야에 대한 선택적 교과수업 가능, 교과에 연계된 진로경로 탐색,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터전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수업개선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인 쇄 2014년 8월 28일

발 행 2014년 8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인쇄처 유진문화사 전화 02-676-2358 대표
